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社 會 背 景/115

方 言/124

地 名/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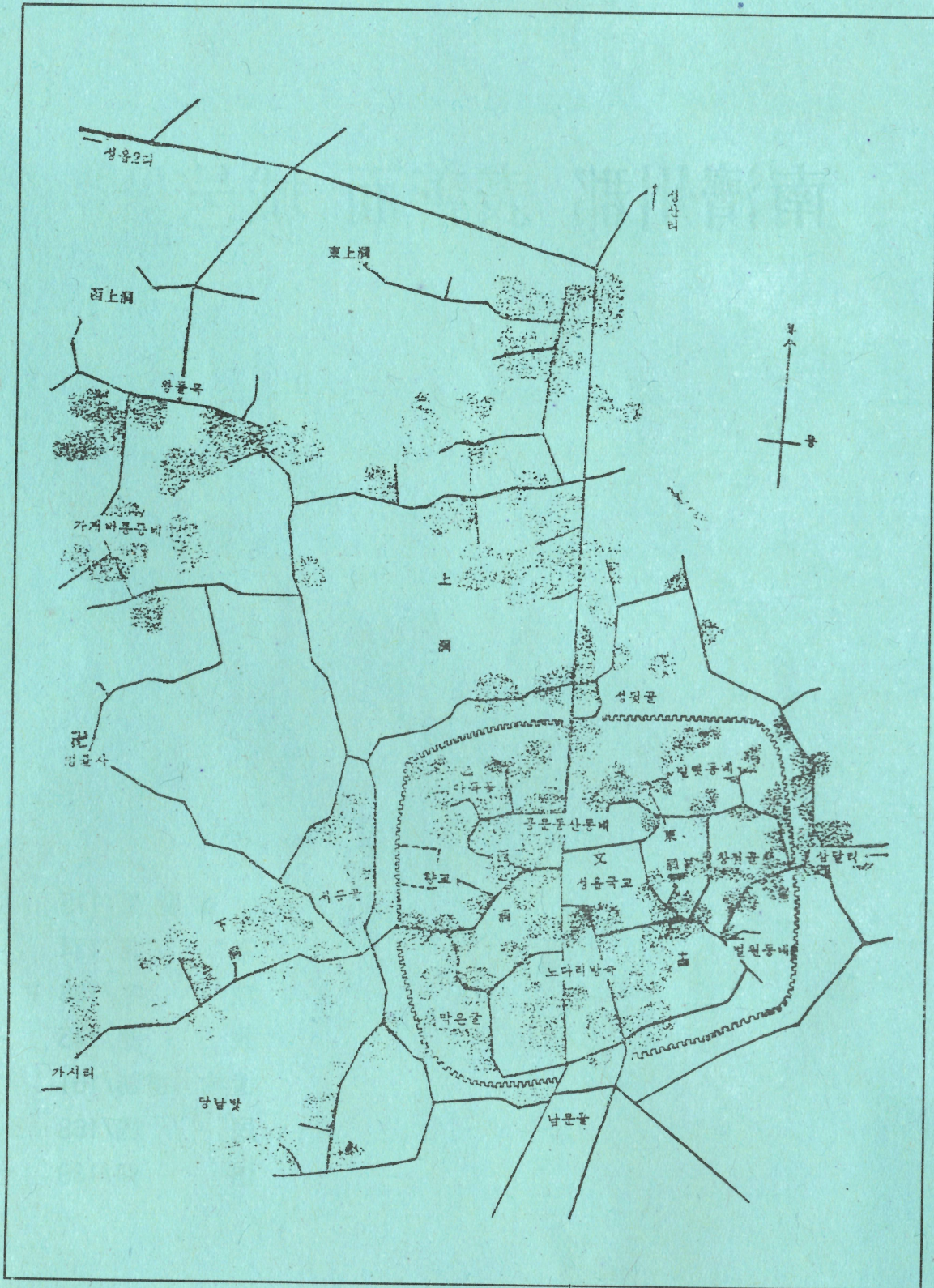
說 話/145

遺物・遺跡/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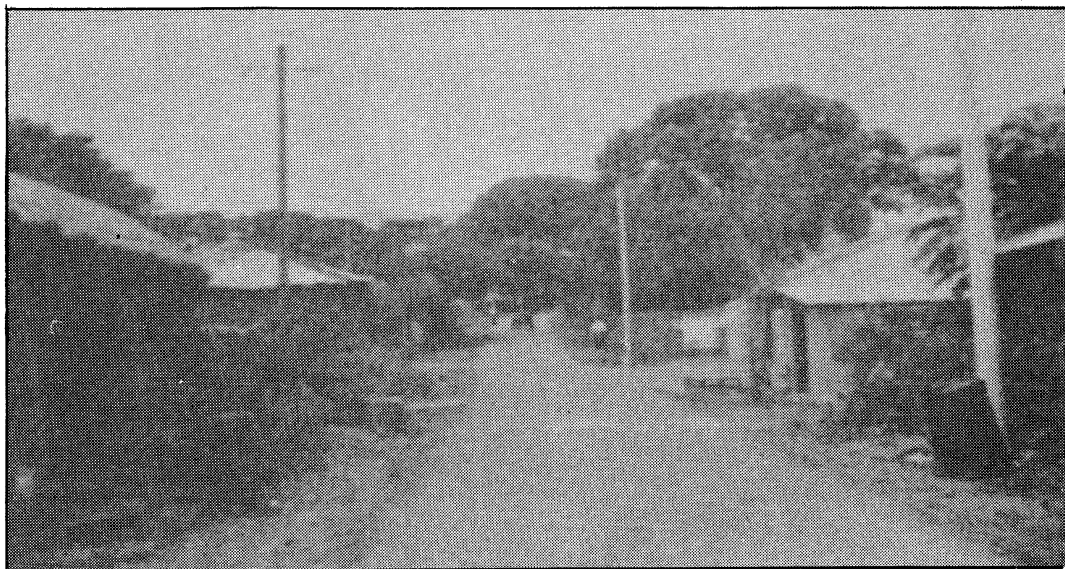
民 謠/168

信 仰/189

城邑 1里 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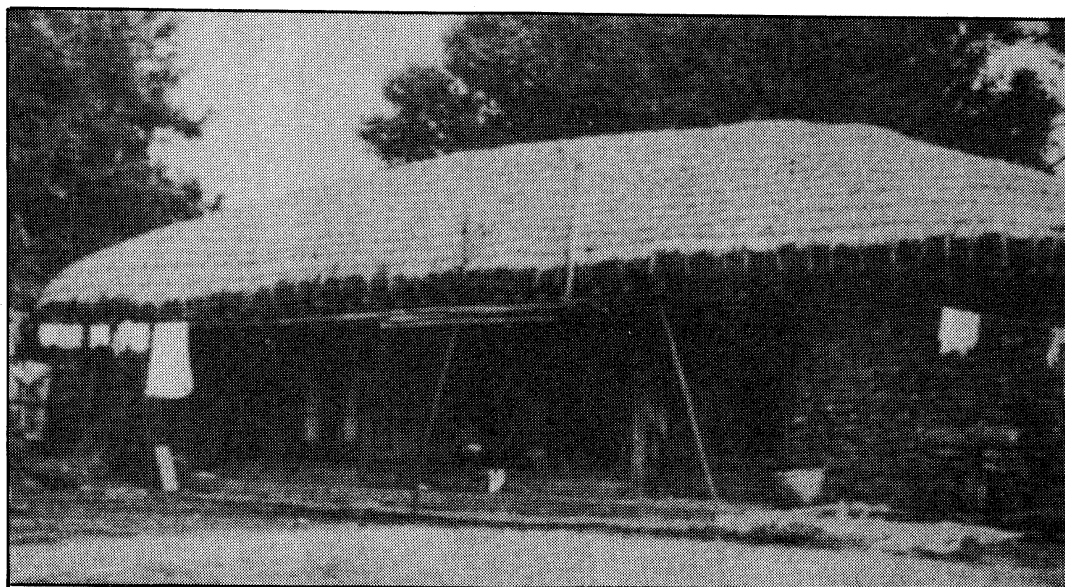
城邑里街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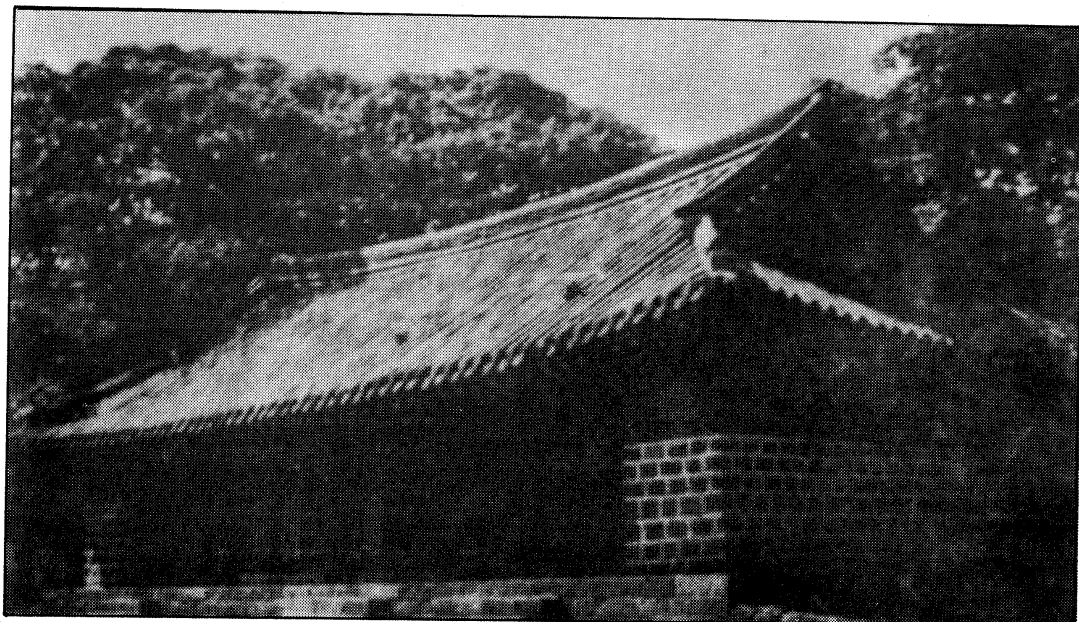


니티나무 (指定文化財 第二號)



古家





旌義廳舍(地方文化財1ゝ7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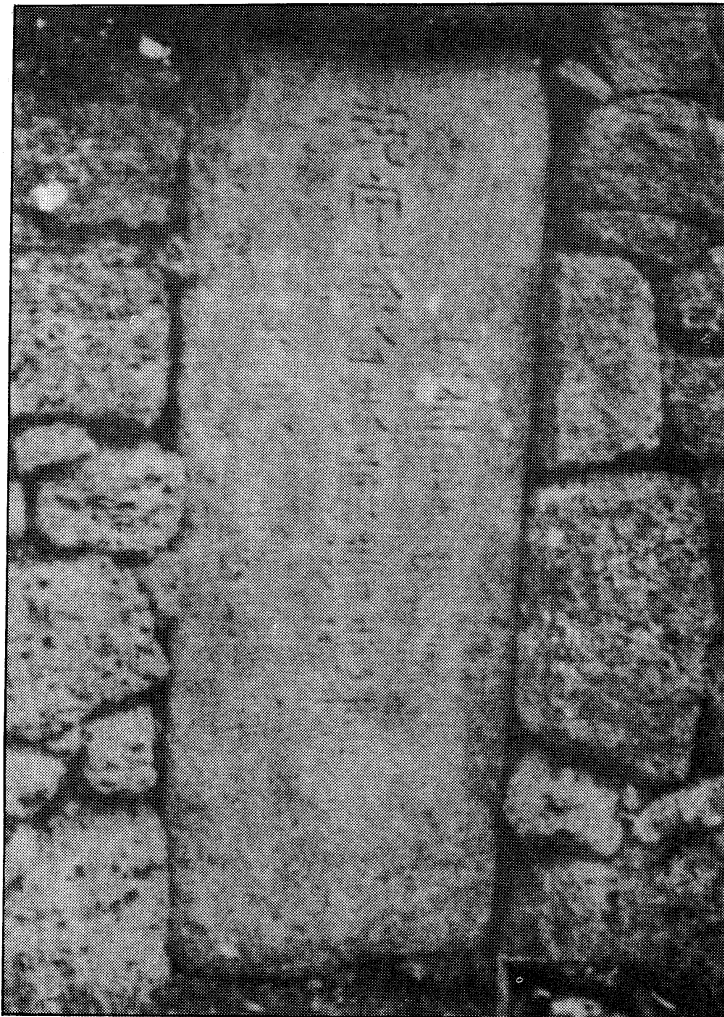


旌義鄉校(地方文化財1ゝ5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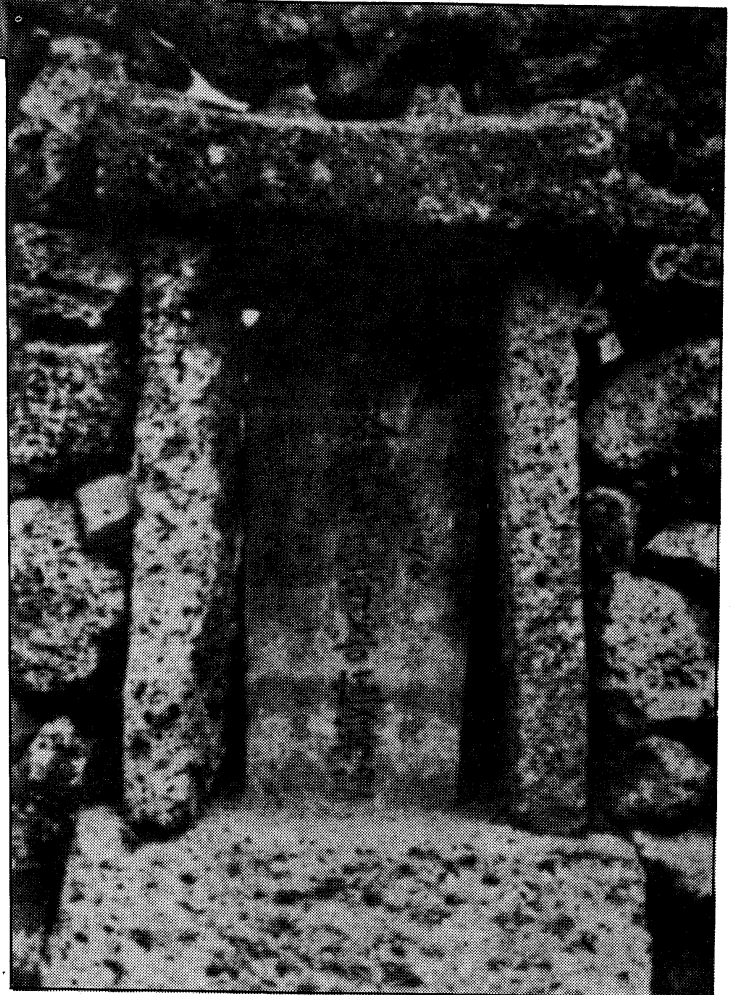


州縣城石像(地方文化財4ゝ2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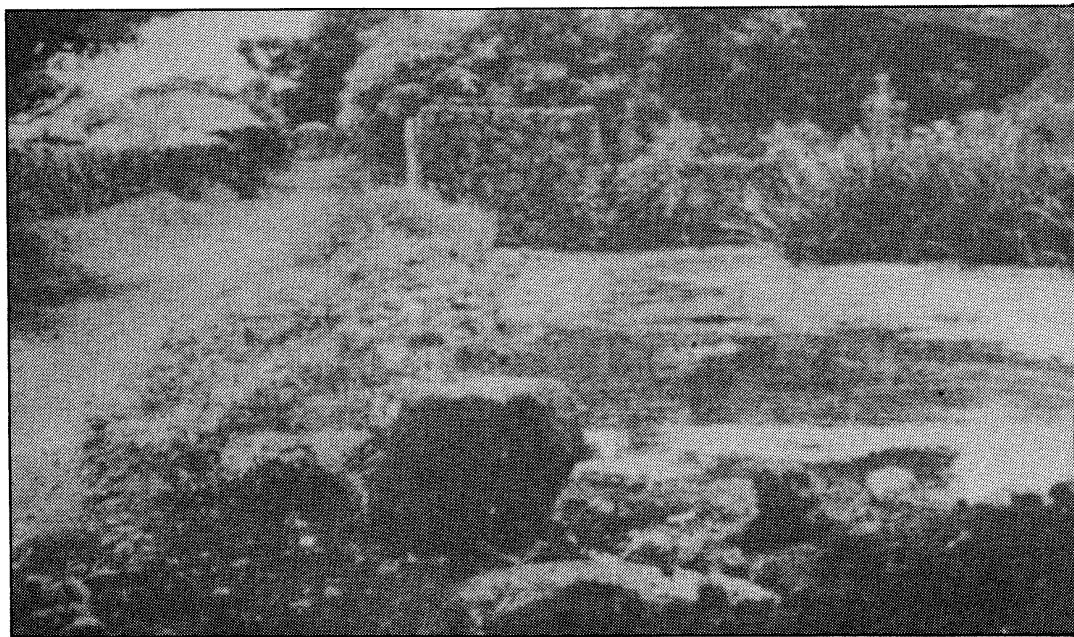
蔡郡守清德碑



李參奉恤窮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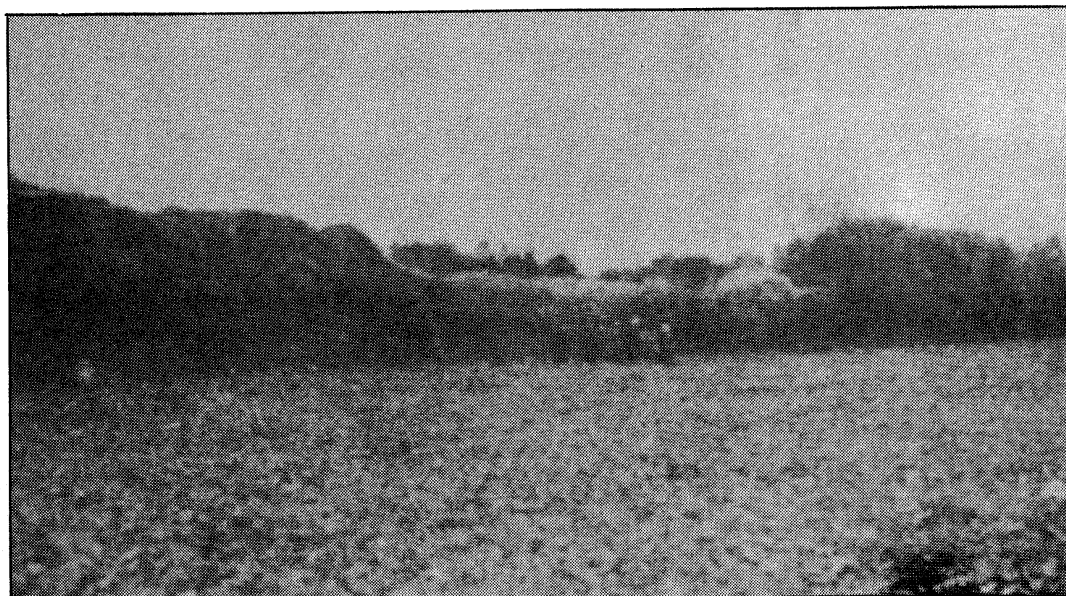
노다리방죽(客舍-南門)



등골(縣監專用 飲料水)



邑城



社 會 背 景

指導教授：金 榮 敦
班 員：文 武 秉 (3年)
高 光 敏 (3年)
玄 德 準 (1年)

目 次

- I. 地 理 環 境
- II. 史 的 背 景
- III. 人 文 概 況
- IV. 產 業 構 造

I. 地 理 環 境

城邑里는 現在 行政區域上 南濟州郡 表善面에 屬하는 山間 마을이다. 城邑里는 約 5百年間(1423년~1914년) 旌義縣의 行政都邑이었던 까닭에 ‘정의고을’, 혹은 ‘정윗골’ · ‘정골’ 등으로 불리운다.

表善面 表善里에서 북쪽으로 ‘넋기’(川尾川)를 따라 약 8.8km쯤 올라가면 城邑一里에 이르고, 다시 더 북쪽으로 3km쯤 올라가면 城邑二里에 다다른다. 城邑里가 城邑一里와 二里로 나뉘어지기는 1961년부터인데, ‘구렁뿔’(九龍洞)과 畜産團地가 있는 ‘안뿔’(安保洞)으로 이루어진 城邑二里는 약 50家口, 250餘名에 지나지 않아서 城邑里라고 하면 보통 城邑一里를 가리키게 된다.

本 城邑里는 海拔高度 12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城山面 新豐里(6km)와 접하고, 동북쪽으로는 城山面 蘭山里(7km) 및 城山面 三達里(5km)와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 表善面 表善里와, 남서쪽으로 表善面 加時里(4km) 및 細花里(7km)와 이웃하고 있다.

濟州島部落誌(Ⅳ)

本里는 山間部落인 만큼 온통 크고 작은 구릉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쪽으로는 ‘본지오름’(150m)·‘독자봉’(獨子峰, 159m)·‘통오름’(桶岳) 등이 있고, 동북쪽으로 ‘이기네오름’(儒巾岳, 160m)·‘모구리오름’(母狗岳, 232m)·‘나시리오름’(羅時岳) 등이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남산봉’(南山峰, 230m)과 ‘매봉’(梅峰 혹은 鷹岩岳, 139m)이 있고, 남서쪽으로 ‘갑선이오름’(188m)·‘설오름’(232m) 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장자오름’(215m)·‘무찌오름’(300m) 등이 있다. 북쪽과 서북쪽으로는 ‘영주산’(瀛洲山, 325m)·‘백약이오름’(百藥岳)·‘돌머리오름’(甌山, 158m)·‘문석이오름’(346m)·‘좌범이오름’(坐虎岳)·‘비치미오름’·‘궁대오름’(弓帶岳)·‘후곡악’(後曲岳) 등이 聳立하여 있다. 이런 天惠의 地理的 環境은 前代(1423년) 城山面 古城으로부터의 移廳의 理由를 쉬이 말하여 주며, 古人들의 風水地理的 叡智와 韻致는 門外漢이라도 一見에 納得이 갈 만하다.

더구나 城邑一里에서 ‘구렁뿔’(九龍洞)과 ‘안뿔’(安保洞)으로 가는 도중에는 數없이 群小 봉우리들이 나타난다.

한편 本里는 林野가 넓거 예로부터 農業 以外로 畜牧·畜養이 이루어져 왔다. 氣候는 溫暖多濕한 편이며 年中 降雨量은 南濟州地域이 豪雨地이듯이 2,200mm나 되며, 따라서 積雪量도 역시 많다고 한다. 장마 기간은 양력 6月 중순쯤부터 시작되어서 7月 하순쯤에 끝난다고 한다.

1965년에 上水道를 시설하기 전에는 他山間部落과 같이 빗물을 받아서 마셨다고 하는데, 洞口의 ‘넋기’(川尾川)邊에 ‘시거너뭇’·‘설수애’·‘서문통’·‘뚝부리통’ 등이 지금도 남아 있다. 현재 上水施設을 보면 공동수가 8군데 있고, 개인수도가 40% 이상 보급되어 있으며, 공동 빨래터가 3개소 있다.

Ⅱ. 史 的 背 景

濟州섬은, 그 表層이 透水層인 火山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地下水가 海邊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湧出된다. 그런 까닭에 島內 聚落들 가운데 4분의 3이상이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本 城邑里는 유난히 海邊과는 무려 8.8km나 隔해 있다.

元來 旌義縣의 縣廳 所在地는 城山面 古城이었다. 古城이 倭寇의 侵奪이 甚하다는 理由 等으로 7年後 이곳 城邑里로 縣廳所在地가 옮겨졌다.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李元鎮의 耽羅志에는 本來 古城에 있던 縣地가 牛島에 가까우므로 晨昏으로 鼓角 소리가 나서, 大風이 여러번 일며, 이삭을 맺지 못하고, 倭賊이 자주 침입해 들어와서 世宗 5年(1423년)에 鄭幹 安撫使의 建議로 晋舍里(現 城邑里)로 縣舍를 옮겼다는 記畧이 보인다.

吳公湜來撫濟州 具事馳聞 釐而三之 西置大靜 東設旌義云云 本濟州東道本朝 太宗 十六年丙申 用安撫使吳湜之啓 折漢拏山南 幅員二百餘里之地 東爲旌義 西爲大靜云云 吳湜分三邑時 因置縣地近牛島 晨昏鼓角 大風屢作 禾稼不登 倭賊迭侵 我世宗五年 安撫使鄭幹建議 以聞 移縣于晋舍里 卽今治也云云 (李元鎮; 「耽羅志」 旌義縣條)

1864年(高宗 元年) 8月, 旌義縣과 大靜縣을 승격하고 郡制를 실시하여 郡守를 두었는가 하면, 濟州牧의 管轄 밑에서 벗어나 직접 全羅道 觀察使의 主宰下에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旌義縣·大靜縣에 邊地郡守를 두고 보니, 濟州島의 特異한 地理的인 與件으로 말미암아 濟州牧과 兩郡間의 紀綱이 紊亂해지고, 行政上의 隘路도 있고 해서, 1880年(高宗 17年) 2月에는 兩邑을 다시 縣으로 고치고 옛 그대로 縣監을 두게 되었다.

1895年(高宗 32年)에는 地方制度의 개편에 따라 濟州를 府로 고쳤으며 牧使를 觀察使로 바꾸었는가 하면 判官制度를 參事官制度로 고쳐 郡守를 겸하게 하였으며 警務廳도 新設하였다.

1906年(光武 10年)에는 1876年(高宗 33年)에 부활했던 牧使制度를 폐지하여 郡守를 두었으며, 1914년에는 旌義·大靜의 2個郡을 폐지하여 濟州郡에 합병시켰다. 그리하여 1423年(世宗 5年) 이후 무려 約 5百年 동안 旌義縣의 行政都이었던 城邑은 縣廳所在地로서의 終焉을 고하게 되었다.

1915年 5월 1일을 기하여 濟州郡 制度가 폐지되고 島制가 실시되었는데 初代 濟州島司로 日人 今村軀이 到任하였다.

지금의 表善面은 中面의 一部였는데 分面에 의하여 松川 以東과 川尾川 以西를 東中面이라 칭하게 되었다. (面里 卽本州中面左面右面 旌義左面中面右面 大靜右面左面也云云 厥後 以應役不便 本州則加設新左右二面 旌義加東西中面 大靜加中面: 金錫翼; 「耽羅紀年」 光海君元年判官金綴設東西坊里約正疏條)

그리하여 縣地였던 城邑里는 自然 表善面 面所로 탈바꿈되었다. 1935年에 이르러 이 東中面은 表善面으로 改稱되었으며, 1946년에는 郡制가 실시되어서 南濟州郡에 속하게 되었고, 1934년에는 面所마저 表善里로 옮겨 가게 됨에 따라 城邑里는 찬연했던 역사만을 남긴 채 一個의 平凡한 마을

로 化하였다.

城邑里는 文化公報部에 의해 文化財史上 처음으로 1977년 6월 3일, 重要 民俗資料 保護區域으로 指定키로 決定하였다. 韓本土의 四個 마을(慶北 月城郡 江東面 良洞마을 · 全南 昇州郡 樂安面 城內 마을 · 江原道 三陟郡 道溪邑 新里마을 · 慶北 安東郡 豐川面 河回 마을)과 함께 名實相符한 重要 民俗資料 保護區域이 이룩될 경우, 城邑里의 面貌는 個性 짙게 될 것이며 學術文化的 · 觀光의 價値는 씩 提高될 것이다.

Ⅲ. 人 文 概 況

城邑一里는 東洞 · 西洞 · 東上洞 · 西上洞으로 구분되었었으나, 民방위 조직상 7반으로 개편되었다.

里行政機構에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문화재보호위원회'가 構成되어 지역적인 特異性을 나타내고 있다. 本里는 304家戶에 1,313명이 살고 있으며 戶當 平均 人口는 4.3名이다. <표1 참고>

가 구 및 인 구

<표1>		표선면 성읍리	
가 구	304호	농 가	273호
		비농가	31호
인 구	1,313명	남	603명
		녀	710명

일 시 : 1976. 12. 31. 현재

제공처 : 성읍리사무소

공공기관으로 里事務所와 城邑國民學校 및 表善面 農業協同組合 城邑分所 등이 있는데 里事務所는 1971년 3월에 在日城邑里親睦會의 도움을 받아 현위치에 준공되었다. 현재 里事務所에는 里長 · 書記 · 使喚 등 3명이 있다.

城邑國民學校는 1937년 8월 21일 城邑尋常小學校로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한 후, 旌義普通學校를 거쳐, 1941년 6월 7일 城邑國民學校로 改稱되었다.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敎職員으로는 校長・校監 및 敎師 5명, 使喚 1명이 있으며, 현재 학생수는 307명이다. 本里의 敎育熱度는 다음과 같다. <표2 참고>

학 생 수			
<표2>		표선면 성읍리	
학교별	성별	남	녀
국민학교		145명	162명
중 학교		40명	39명
고등학교		29명	14명
대 학교		7명	1명

일 시 : 1977. 7. 31. 현재

제공처 : 성읍국민학교

공공건물로는 공동창고(30평) 1동, 새마을회관(30평) 1동, 농협창고(30평) 2동 등이 있다.

공식기구로는 鄉友會・4H구락부・青年會・婦人會 등이 있으며, 비공식기구로는 친목을 도모하는 契가 있는데 「물매풀래」・「장막집」・「화단집」・「산담집」・「살집」・「뽕집」・「켓집」 등이 있다.

한편 生活集團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硯子磨는 과거에 16개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文明의 利器로 모두 없어졌다. 趙一訓氏宅(城邑里 827番地)에서 個人所有로 집안에 硯子磨를 마련했었다는 점은 特記해야 할 것이다. 硯子磨의 殘存 名稱을 들어 보면 「南門물매풀래」・「창뒤물매풀래」・「公門동산물매풀래」・「막은굴물매풀래」・「당남밭 물매풀래」・「西門거리물매풀래」・「가게비통물매풀래」・「왕돌목물매풀래」・「뚝부리통물매풀래」・「성릿물매풀래」・「客舍물매풀래」 등이다. 이런 名稱은 대부분 自然部落 名稱에 의존하고 있다.

住民의 信仰은 그 信仰處인 여러 堂의 형성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가운데 「안할망당」・「광주부인당」・「일뤼당」・「개당」 등은 아직도 殘存해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안할망당」은 1971년, 里事務所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 里事務所 西側으로 移轉, 2평쯤의 슬레이트 집에서 모시고 있다. 이 「안할망당」의 ‘안할망’은 全城邑 주민의 건강과 신수 등을 統括한다고 한다.

濟州島部落誌(Ⅳ)

城邑一里에는 예수교長老會城邑敎會가 있으며, 大韓佛敎法華宗 靈佛寺가 있다. 敎會는 設立年代가 오래지만 그 信徒數는 미미한 편이다. 佛敎는 50가구 정도가 固定的으로 신봉하고 있고 20여가구가 流動的이라고하는데, 신도의 대부분은 城邑一里에 거주하나, 九龍洞이나 三達里等に 사는 신도도 더러 있다.

1970년 3월에는 전기가 가설되어서 文化시설의 보급이 <표3>에서와 같이 현저하다. <표3 참고>

문 화 시 설

<표3>

표선면 성읍리

라디오	시계	전축	전화	신문	애프	TV	자전거	공동수도	개인수도	냉장고
168	108	11	1	42/5중	1	87	37	9	126	7

일 시: 1977. 12. 31. 현재

제공처: 성읍리사무소

또한 1968년 3월에는 우체통이 설치되어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회씩 집배원이 다니고 있으며, 1973년 12월에 전화 1대가 里事務所에 가설되었다.

1974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총 8.8km <표선~‘땅동산’ 곧 城邑一里 끝>의 도로가 재일교포들의 재정적 협조와 주민들의 노력 부담으로 포장되어 하루 9회의 버스가 표선과 성읍 사이를 왕복한다. 이 도로포장 사업은 在日僑胞·住民·隣近住民들의 三重奏의 協同譜로서 類例 드문 愛郷의 示範이었으니, 특히 在日城邑里出身親睦會(當時 會長 金鍾熙)의 經濟的 支援은 特記해야 할 것이다.

本里에는 잡화점이 7군데, 식육점이 1군데, 2.5평 규모의 이발관이 1군데 있다. 生必品은 주로 表善 五日場(2日·7日)에서 구입하고 있다.

通婚圈은 대체로 과거에는 蘭山里·新豐里·加時里 등 山間部落을 中心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금은 表善里·下川里 등의 海岸部落과도 通婚하는 경우가 흔해 가고 있다.

IV. 產 業 現 況

城邑里는 廣濶한 牧野地로 둘러져 있다. 耕地面積은 里總面積의 9.2% 밖에 안되는데 林野地는 約 81%에 달한다. 따라서 城邑里는 平凡한 山間農村이면서 多數의 農家가 畜産業을 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5. 6 참고>

연 도 별 축 산 현 황

<표4>

표선면 성읍리

연 도	한 우	고기소	돼 지	개	토 끼	말
1975	452	137	220	73	23	98
1976	322	246	204	61	41	103

제공처 : 표선면사무소

가 축 사 육 현 황

<표5>

표선면 성읍리

가축명	암 수	소	말	돼지	염소	닭	개	고양이
사육두수	송	152	48	126	26	175	42	2
	우	355	53	78	46	332	50	3
계		507	101	204	72	507	92	5

일 시 : 1977. 12. 31. 현재

제공처 : 성읍리사무소

목 장 조 합 운 영 실 태

<표6>

표선면 성읍리

목장명 ↓	구분 → 가입조합원수	면적 (ha)	입 목 두 수		
			한 우	교 배 종	기 타
영주목장	6	142	78	10	18
모지악목장	58	72	65	8	15
기타					17
계	64	214	143	18	50

일 시 : 1977. 12. 31. 현재

제공처 : 성읍리사무소

濟州島部落誌(Ⅳ)

本里의 氣象條件은 農事에 不適하여 古來로 農產物 收穫高가 低調한 편이었다. 5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대여곡으로 상당량을 배정받아 소비량을 충당하였으나 近來에 와서는 <새마을 운동>으로 식량의 자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토 지 이 용

<표7>

표선면 성읍리

분류	총 면 적	경 지 면 적	임 야 면 적	과수면적	기 타
면적	29,612 ⁴ 반보	2,475 ³ 반보	22,913 ⁴ 반보	339 ⁷ 반보	3,884반보

일 시: 1976. 12. 31. 현재

제공처: 표선면사무소

<표7>에서 보면 과수면적이 339반보로 나타나 있는데, 九龍洞과 安保洞으로 올라가는 城邑一里 북쪽에 규모 있게 마련된 감귤원이 있다. 모두가 日本 大阪에 居住하는 이 마을 出身 在日僑胞 康寅成·康泰重·洪泰三等이 마련한 것이라 한다.

所 得 現 況

<표8>

표선면 성읍리

作物別→ 區分↓	米 穀	麦 類	雜穀	豆 類	薯 類	柑 橘	畜 產	油 菜
面積(反步)	440	850	160	480	1,117	339.7	大家畜671頭	1,720
數 量	60.3t	200t	22.8t	40.5t	870.7t	31t	小家畜245頭	239t
租收益(천)	12,595	31,063	2,569	13,162	93,916	9,199	181,718	63,096

<표8계속>

作物別→ 區分↓	무 우 말 림	林產物	堆 肥	一般 作物	青 茅	總 計	備 考
面積(反步)	230			23			
數 量	12.6t	570t	5,182t	21t			
租收益(천)	3,025	2,166	25,910	366	10,800	449,544	里戶當收益1,478천 원

일 시: 1976年末

제공처: 表善面事務所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표8>에서 보듯이 城邑里的 주요 수입원은 畜産이다.

表善面內 各里的 耕地面積을 比較해 보면 戶當 平均 耕地面積이 城邑里보다 작은 마을은 表善里이다. 그러나 表善里는 바다에 隣接해 있으므로 第一種 共同漁場을 비롯한 漁業所得이 있고, 商業 等 住民의 生業手段이 多樣하여 對比가 안된다. 이러한 農業 自体의 零細性を 畜産으로써만 회하려는 努力이 現地에서 실감되었다.

農畜 다음으로 住民의 所得源이 되는 것은 近來에 붐을 일으킨 油菜生産이다. 油菜生産은 住民의 家計를 한결 풀리게 한다. 또한 무우말림 생산에 따른 收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무우말림은 한 해의 農事가 끝나는 11月 中旬부터 시작되는데 農閑期의 일손을 利用할 수 있으며 收入도 꽤 좋은 편이어서 점차 무우의 경작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다음에는 靑茅의 生産이다. 이 靑茅는 莞島 등지로 수출되어 김을 달리는 데 쓰인다. 城邑一里에서 二里로 往來해 보면 실감하겠지만 훨씬 트여 視界에 걸리는 게 없다. 이 草野에서는 해마다 2만뿔음 이상의 띠(茅)가 생산된다.

그리고 여느 마을에서처럼 고구마에 따른 수익 역시 대단하여, 畜産에 의한 수익 다음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表善面の 集計에 따르면 城邑里的 戶當 平均 所得은 1976年末 現在 1,478,000원으로 나타나 있어 농가소득의 상당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方 言

指導教授：金 洪 植
 班 員：南 昌 煥 (3年)
 金 美 京 (1年)

被 調 査 者

고	용	희 (男, 79歲)	송	기	준 (男, 79歲)
이	주	삼 (男, 72歲)	고	기	옥 (男, 69歲)
김	원	형 (男, 67歲)	양	문	규 (男, 60歲)
고	성	부 (男, 57歲)	홍	인	복 (男, 51歲)
강	두	선 (男, 13歲)	홍	영	일 (男, 9歲)

目	次
I. 官衙・官屬語彙	V. 馬具名
II. 刑具 및 武器名	VI. 農具名
III. 家屋의 部分名稱	VII. 其他
IV. 身體名 및 動物體의 部分名稱	

I. 官衙・官屬語彙

- 도청(都廳)：都執事の 居所이며, 여러 관리들이 모여 議論하던 곳.
- 조련청(操鍊廳)：軍人들을 訓練시키던 곳. 우두머리는 조련 항수(操鍊 行首)이며, 조련청을 교련청(敎鍊廳)이라고도 함.
- 무학청(武學廳)：武官들이 모여서 工夫를 하고, 武藝의 敎習을 맡던 곳.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 사령청(使令廳): 使令들이 待機하는 곳.
- 과상청(寡裳廳): 行首妓生이 살며, 新入 妓生에게 춤이나 노래 등의 妓技를 가르치고 官妓의 諸般事를 맡아 본다.
- 예변청(豫變廳·禦邊廳): 各種 事故의 豫防을 맡는 곳. 우두머리는 예변 향수(豫變行首)
- 향청(鄉廳): 員을 補佐하던 諮問機關으로, 員이 出他時에는 座首·別監·風憲 등이 代理 執務하며, 本是 鄉校에 所屬되나 官衙에서 掌管했었다 한다.
- 질청(質廳·路廳): 吏房의 居處이며, 戶籍事務 따위도 擔當한다. 한편 질청은 문서를 만든다는 뜻으로 「짓다(作)+廳」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기도 한다. (耽羅志旌義縣官室條에 ‘作廳’이 보임)
- 동헌대청(東軒大廳): 員이 駐在하면서 事務를 보던 곳으로, 凡人은 勿論 吏房도 함부로 出入 못하게 했었다고 하며, 吏房은 欄杆에 앉아 書記官 노릇을 했다고 한다. 罪人을 訊問할 적에는 이 앞 뜰에서 꿇어 앉혀 行했었다고 한다.
- 군기고(軍器庫): 武器·火藥·焰硝·중통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우두머리는 군기감.
- 마방(馬房): 말을 관리하던 곳.
- 객사(客舍): ① 외부 손님을 접대하고 맞아들이던 곳. (송 기준翁)
② 공자의 위폐를 모신 곳으로 원님도 이곳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예의를 표시하던 신성한 곳. (고 용희翁)
- 현사(縣舍·絃所): ① 관청의 의복·빨래를 담당하며 官妓가 居處하던 곳. (고 용희翁)
② 집사가 거주하며 기생들을 관장하던 곳. (송 기준翁)
- 내동헌(內東軒): 원님의 부인이 居處하던 곳.
- 책실(冊室): 지금의 도서관과 같으며 원님의 시중을 드는 官屬, 또는 그 官員(금장·사령·도사령) 등이 머물던 곳.
- 감상(監床): 원님의 음식을 맛보며, 그외 음식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
- 금장·금쟁이: 원님의 命令 등을 傳達하는 관노(官奴).
- 통인: 담뱃대에 불을 붙이는 등, 원님의 여러 잔시중을 드는 17~18세 정도의 사람.

濟州島部落誌(Ⅳ)

- 고직(庫直): 官衙의 米穀 및 副食物類를 관장하던 사람이며 대를 이어가며 담당함. 육고직(肉庫直)은 반찬(주로 고기)을 관리하는 하인이며, 미고직(米庫直)은 밥을 관리하는 하인.
- 소지(訴紙): 庶民들이 자신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기 위해 이방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 소지 定하러 왔읍니다”라고 알리면 이방이 사실을 써서 원님께 보고하던 글.
- 재서(裁書): 判決書.
- 중방: 원님의 出行時 의복 관리를 맡아보던 곳.
- 형방: 원님의 말씀하신 바를 기록하고, 문서를 담당하던 곳.
- 대청: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妓女들을 모아 유흥을 즐기는 곳.
- 창방: 약 40여 평의 창고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대저하고 이듬해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일종의 빈민 구제 기관.
- 사령: 죄인을 다루는 관리.

※ “시집 아니 사는 사름 날 뵙 정 다습서.”—시집을 죽어도 살지 못하겠다는 여자에게 북을 지우게 하여, 사령이 끌고 성 주위를 돌면서 위의 말을 외치게 한다. 이 때 사령에게 미리 대접을 후하게 하면 女子는 가만히 뒤만 따라가고 사령이 대신 위의 소리를 외치며 북을 치나, 대접이 소홀하면 여자에게 고통을 주며 위의 소리를 외치게 함.

※ “비루회성 하는놈 날 뵙 정 다습서.”—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을 해치는 문란한 罪를 범한 죄수에게 칼과 북을 지우게 하고, 사령이 뒤에서 성 주위를 돌게 하면서 죄인으로 하여금 위의 소리를 외치게 함.

- 삼투장당수: 죄인을 죽이는 일을 하는 관리.
- 조방장(助防將·鎭將): 鎭에 대한 방위 책임자. 都廳에 부속됨.

Ⅱ. 刑具 및 武器名

- 중통: 마디마디의 통을 만들어 화약을 담은 다음 보래알(둥그런 알)을 담고 화약에 불을 붙여 보래알을 튀어 나가게 한 170~180cm 정도의 砲라고 하며, 지름이 약 40~50cm 라 한다.
- 소중통: 중통과 모형은 같으며 약 2자 정도라고 한다.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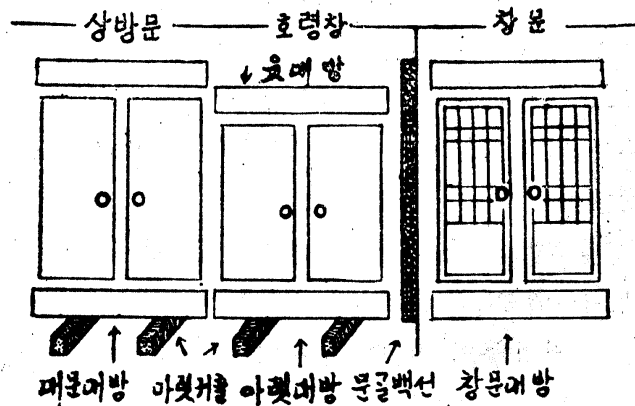
- 좌광 : 총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때리면 불이 나며, 보래알을 터뜨리게 하는 폭발 화약.
- 세발쇠 : 못 모양의 다리가 4개 있으며, 3角은 땅에 박히고 나머지 1角은 항상 위로 향하게 되어 있어, 路上에 뿌려두면 적의 발에 꽂혀 상처를 입게 된다. 크기는 약 7~8cm 정도라 함.
- 쌀쭉 : 화살 끝에 쇠로 만든 축으로 둥근 것과 납적한 것이 있다.
- 백화약 : 솜 모양의 화약으로 굵은 왕대(竹)에 담아 사용했다 함.
- 곤장 : 중한 죄인에게 치는 杖.
- 태장 : 경한 죄인에게 치는 杖.
- 칼판 : 살인 등의 重罪를 지은 죄인의 목에 씌우는, 絞首刑에 使用하던 刑具.
- 찻괴 : 보통 죄인의 다리에 채우는 刑具.
- 당철 : 무릎 부분을 때리는 형벌.
- 형판 : 도마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태형을 가하기 위하여 罪人을 엎드리게 하여 묶어 매질하는 刑具.
- 패장 : 輕한 죄인을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

Ⅲ. 家屋의 部分 名稱

- 부섭 : 마루에 놓는 돌 화로.
- 안거리 : 안채.
- 박거리 : 사랑채.
- 말칩 : 주춧돌 없이 그대로 땅에 기둥을 박은 것.
- 지딧돌 : 주춧돌.
- 사방칩 : 주춧돌을 받치고 기둥을 세운 것.
- 가꿀목 : 부엌문 옆에 가로로 대는 나무.
- 빈지 : 부엌과 상방(마루) 사이에 대는 판자나 재목.
- 빈짓돌 : 부엌 입구와 옆 기둥 사이의 돌. 원래는 나무로 만듦.
- 살레 : 찬장.
- 포 :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착수하며 집의 중심이 됨.
- 종포 : 포 위에 메우는 것.
- 장계 : 물건을 넣어두기 위해 방안에 나무로 된 궤(櫃)를 벽면에 붙여 짚 것.

濟州島部落誌(Ⅳ)

- 데방 : 문지방.
- 난간마리 : 툇마루.
- 부추리 : 툇마루 제일 앞의 굽은 나무.
- 서슬목 : 지붕 끝 부분을 지탱하기 위한 여러 개의 받침대.
- 앞도리 : 지붕의 앞부분을 길게 가로지르는 나무.
- 뒷도리 : 지붕의 뒷부분을 길게 가로지르는 나무.
- 거왕대 : 지붕을 매는 새끼줄을 묶기 위한 나무.
- 추녀서리 · 추년서리 : 지붕 네 귀의 서리.
- 젓서리 : 서리와 서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집어 넣는 서리.
- 외도리 : 지붕 밑에 있으며 개요기둥 위를 가로지르는 나무.
- 옷대방 : 양쪽 문 위에 가로 놓인 나무.
- 알대방 : 양쪽 문 아래 가로 놓인 나무.
- 한간도리 : 옷대방 위에 두개의 나무를 세워 그 두개의 나무를 가로지르는 나무.
- 호령창 · 호령창 : 큰 창문.
- 알귀클 : 대방 아래의 것으로 네 귀에 돌아가며 한다.
- 셋문 · 지깃문 : 구들(방)과 상방(마루) 사이의 문.
- 서리 : 서슬목 양쪽에 세로로 길게 놓여진 나무.
- 도리 : 서리의 양쪽에 가로지르는 나무.
- 헛지둥 : 가풀목 양 옆에 세로로 놓인 나무.
- 헛백선 : 빈지를 유지하기 위해 옆으로 매는 나무.
- 고대 : 지붕 안의 서리. 서슬목 바로 위에 흠을 붙인 것. 서슬대 위에 붙게 됨.
- 배깃귀클 · 시렁귀클 : 백장(벽장) 밖의 귀클.
- 시렁 : 벽장.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 퇴기 : 대(竹)를 벽에 붙여 바르는 것.
- 돌축 : 집의 바깥 벽.
- 가싯돌 : 퇴기와 퇴기 사이의 돌.
- 마릿귀쿨 : 널로 된 것으로 흙에 집어 넣은 것.
- 이엇돌 : 돌로 박은 것으로 난간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디디게 된 것.

IV. 身体名 및 動物体の 部分 名稱

1) 身體 名

- 북부기 · 북부지 : 폐.
- 애 : 간장.
- 테도 : 콩팥.
- 지레 : 지라.
- 비피 : 둔부.
- 검은꼭뒤 : 頭後部. 머리 뒤의 들어간 곳.
- 불타가리 · 불딱사니 · 귀똥백이 : 뺨.
- 잠지 : 볼기.
- 청보 : 언청이.
- 꼭리똥 : 주근깨.
- 지미 : 기미.
- 억 빼기 · 얼근사름 : 곰보.
- 종애 · 종외 : 다리 부분.
- 독지 : 어깨.
- 독지 빼 · 분채팡 : 어깨뼈.
- 송머르팡 · 송머리팡 : 배 윗부분의 뼈.
- 귀마리 : 다리의 밑 부분(발목).
- 풀꼭지 : 팔꿈치.
- 안주애 : 人指.
- 엉금손 : 拇指.
- 꼭뒤 · 꼭디 : 頭上.
- 장심 : 팔목에서 중심되는 굵은 動脈.
- 엄팽이 : 엉덩이.

濟州島部落誌(Ⅳ)

- 오목가심 : 胸下部.
- 목구레팡 : 목젓뼈.
- 도가니팡 · 동무릅 · 도광팡 : 무릎뼈.
- 푼채팡 : 엉덩이뼈.
- 어귀뼈 : 귀밑에서 턱사이의 뼈.
- 맹팡 : 위(胃) 부분에 조그맣게 나온 뼈.
- 삼산이팡 · 삼스니팡 : 척추 아랫 부분의 뼈.
- 들윳 · 들젓 : 눈 위에 나는 피부병의 일종.
- 게쩍 · 게십 : 눈 아래 나는 피부병의 일종.
- 눈방울 : 눈동자.
- 눈망댕이 : 눈의 卑語.
- 사막 : 사마귀.
- 죽은사막 : 바작 붙어 납작한 사마귀.
- 산사막 : 붉은 빛의 여문 듯한 사마귀.
- 복사막 : 얼굴 특히 입 부근에 나는 사마귀.
- 뒤치기 : 뒷축.
- 솔박귀 : 큰 귀.
- 니끼비 · 낫싸움 : 여드름.
- 독곡지 : 뒷고개.
- 말몰레기 : 병어리.
- 알아구리턱 : 턱뼈.
- 귀아지 밀어볼켜 : 뺨을 때리겠다는 뜻.
- 배또롱 : 배꼽.
- 입빠위 · 입바이 : 입술.
- 발 눈튼다 :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이름.
- 작박 아구리 : 턱이 앞으로 휘어진 것.
- 풀따시 : 팔.
- 정갱이 : 다리.
- 젓갱이 : 겨드랑이.
- 사툼 · 강알 : 살.
- 약아지 : 목.
- 흘목 · 흘모게기 : 팔목.
- 안귀마리팡 : 복사뼈의 안쪽에 나온 부분의 뼈.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 독새기 팡 · 밧귀마리 팡 : 복사뼈.
- 눈뚜께 : 눈.
- 상손가락 : 중간 손가락.
- 물광팡 : 부드러운 뼈.
- 당철팡 : 무릎 밑 뼈.
- 귀마구리 : 귀가 먹은 사람.

2) 돼지의 각 부분 명칭

- 옷대강이 : 돼지의 上頭.
- 목도레기 · 휘양도레기 : 목 부분의 살.
- 알아구리 : 돼지의 下頭.
- 전각 : 앞다리.
- 후각 · 뒷각 : 뒷다리.
- 일륜 : 뒷다리의 윗부분. 둔부와 갈비 사이 부분.
- 갈리 : 갈비.
- 숭 : 배 부분.
- 비피 : 엉덩이.
- 아강발 : 돼지의 발.
- 접작뼈 : 목과 갈비 사이 부분.
- 횡경모작 · 행정모작 : 돼지 발의 윗 부분.
- 12각 : 돼지를 도살했을 때 나뉘지는 12부분. 즉 비피 · 전각 2개 · 후각 2개 · 머리 · 목도레기 · 접작뼈 · 갈리 2쌍 · 숭 2쌍.
- ※ 항정 : 소 · 말의 목 부분.
- ※ 7각 : 소를 도살했을 때 나뉘지는 7부분. 즉 전각 2개 · 후각 2개 · 항정 비피 · 숭.

3) 곤충 및 동물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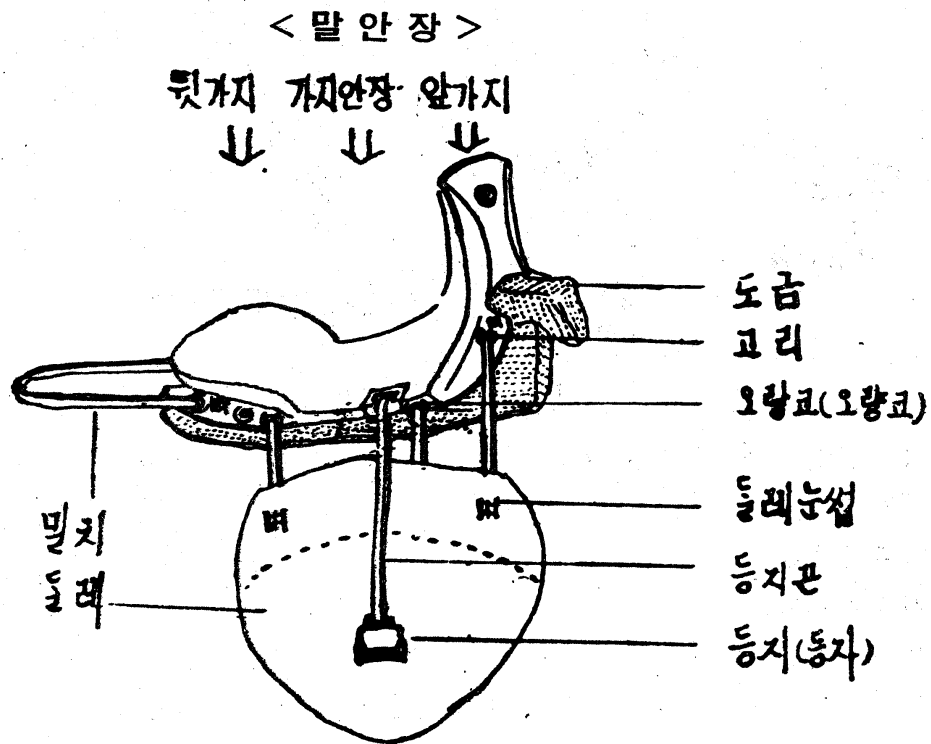
- 물제열 · 물제리 : 고추잠자리.
- 왕제열 : 큰 소리를 내는 매미.
- 꽃제열 : 소리가 작은 매미.
- 고지각제리 : 고지각고지각 우는 매미.
- 꽃자리 : 털매미. 저녁매미.
- 채공중이 : 여치와 비슷하며, 긴 수염이 돌아 있음.

濟州島部落誌(Ⅳ)

- 공중이 :
- 말축 : 메뚜기.
- 심방말축 : 길며 흰 메뚜기.
- 선비말축 : 방아깨비.
- 당행이 · 소곰바치 :
- 하늘쇠 · 쇠뚝구리 · 하늘접재기 : 사슴벌레.
- 쇠꼭리 : 소에 붙는 파리로 크기가 작은 것.
- 장콜레비 : 도마뱀.
- 구렁이 : 굵고 큰 뱀.
- 물뱀이 : 독사.
- 돛줄레 : 알록달록한 물뱀.
- 샛배염 : 작고 가느다란 뱀.
- 부군 : 귀가 있는 큰 뱀.
- 사막 · 배불근 고개비 : 물개구리.
- 고개비 · 가게비 : 산개구리.
- 두테비 : 두꺼비.
- 조랑뱀 : 자그마하고 노란 색의 뱀.
- 개염이 · 개염지 : 개미.
- 물자리 : 왕잠자리.
- 심방거미 : 알록달록한 거미.
- 주녕이 : 지네.
- 고치장 : 애매미.
- 동복쟁이 : 비단길앞잡이.
- 고레 : 물방개.
- 땅강생이 : 땅강아지.
- 팽이 : 물맞이개.
- 빈두엑 · 두무예기 · 뚝뽕이 : 풍뎡이.
- 진두기 : 진드기.
- 왕자리 : 왕잠자리.
- 하막 : 빨개구리.
- 강벼룩 : 도롱뇽.
- 곡쟁이 : 버마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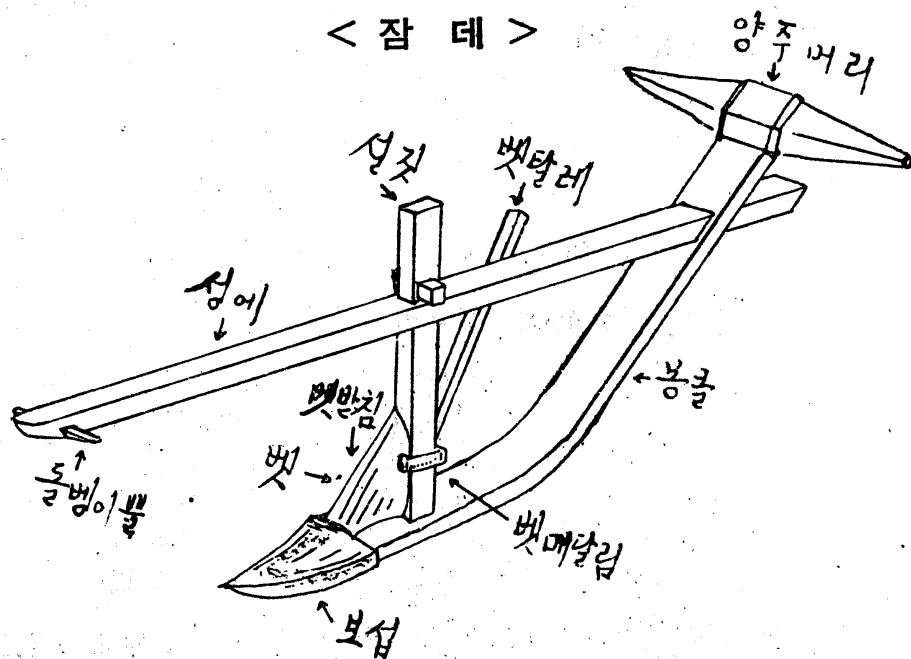
- 돛거미 : 왕거미.
- 벼룩 : 벼룩.

V. 馬 具 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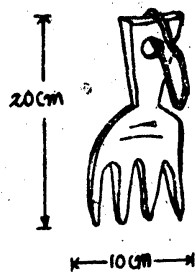


- 돌레 : 말 안장 양쪽에 다는 것으로 말가죽으로 만듦. 비나 눈이 올때
에 흙이 튀거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ㄱ돌게나무 : 말을 탔을 때 엉덩이 뒤에 받치는 나무.
- 샷패 : ㄱ돌게나무를 고정시키기 위해 오랑베에 접어 묶는 것.
- 오랑 : 안장을 말에 묶는 것.
- 오랑코 : 오랑을 매는 곳.
- 밀치 : 꼬리 밑으로 감는 줄을 연결시키는 곳.
- 고리 : 돌레끈을 다는 곳.
- 등자 : 말을 탔을 때 발을 끼워 넣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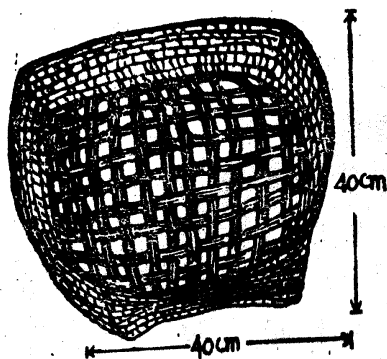
VI. 農具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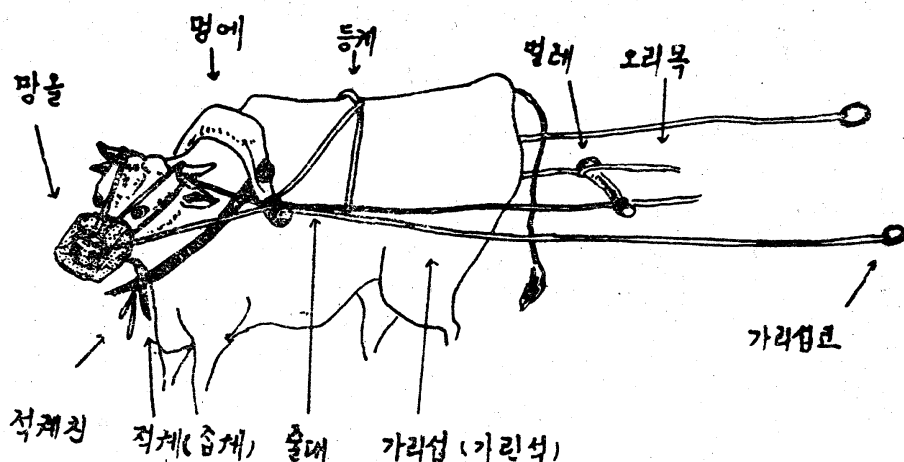
- 잡데 : 밭갈이에 쓰이는 農具.
- 벧·뵈트 : 흙을 눅히는 것.
- 갈래죽 : 삼.
- 쇠패 : 지렛대.
- 망을 : 소가 풀이나 다른 것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씌우는 것.
- 가리삽·가리석 : 소의 코에 연결된 끈으로, 방향을 조절함.
- 새치기 : 띠(새)를 정열하고 고르는 데 쓰인다(빋과 같은 구실).
- 얼멩이 : 보리나 콩을 고르는 데 쓰는 것.



<새 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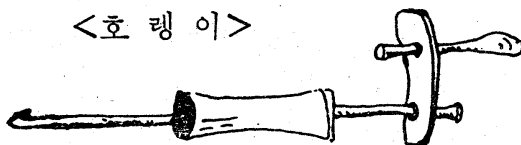


<일행이>



○ 호랭이 : 짚을 이어서 지붕을 엮어 매는 새끼줄을 만드는 기구.

<호랭이>



○ 주쟁이 · 노람지 : 비를 맞지 않게 짚을 우산 모양으로 만든 것.

○ 도꾸레착 · 독고래착 : 퇴비를 담아 소에 실어 운반하는 것.

Ⅶ. 其 他

1) 服飾 및 신발 명칭

○ 갑실신 : 가죽을 재료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만든 신. 아래는 창신 모양.

○ 창신 : 날씨가 좋은 때 신는 고급 가죽신으로 꽃맹이와 가막창신이 있다.

○ 꽃맹이 : 신발 코에 꽃이 그려진 신.

○ 가막창신 : 보통 사람이 시집갈 때 신는 예쁜 꽃무늬의 고급신.

○ 진신 :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에 신는 신으로 가죽을 절여 만듦.

○ 나막신 · 남신 : 비 올 때 신는 신.

○ 초신 · 짚세기 : 일반 보통 신.

○ 툇래보신 : 누비고 본을 놓고 만듦. 백일 때에 어린이가 신음.

○ 옆낭 : 옆으로 홀튼 주머니의 일종.

濟州島部落誌(Ⅳ)

- 갈중이 · 갈정뱅이 · 감중이 : 노동복.
- 벌립 · 병거지 : 머리에 쓰는 것.

2) 구덕의 종류

- 출구덕 : 보통 대로 옆은 구덕.
- 이버지차롱 : 시집갈 때 많이 가지고 가는 구덕.
- 보른구덕.
- 고는데구덕.
- 송키구덕.

3) 植物名

- 몰쿠시낭 : 떨구슬 나무.
- 느끼낭 · 니끼낭 · 굴무기 : 느티나무.
- 강낭대축 · 대축부레기 : 옥수수.
- 머기낭.
- 사당대축.
- 허공고사리.

4) 포목 및 다듬질

- 토포 : 본토에서 나는 베.
- 일목 : 中上의 포목으로 튼튼함.
- 영암목 : 육지 영암에서 나는 최고급의 목.
- 마포 · 목 : 붉은 색을 띤 것으로 마산에서 생산되는 목.
- 옥영목 : 옥양목.
- 민영 · 미녕 : 무명.
- 다듬이 : 방망이질.

5) 베의 종류

- 꼭베 : 칩으로 만든 베.
- 미베 : 억새풀로 만든 베.
- 총베 : 말총으로 만든 베.
- 찢베 : 짚으로 만든 질긴 베.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 너울베 : 새(띠)로 만든 베.
- 굴력베 · 굴룩베 : 밭에 나는 풀로 만든 베.
- 시얏베 · 시얏베 : 소에 물건을 실을 때 쓰는 베.

6) 말의 명칭

- 가라말 : 흑색의 말.
- 적다말 : 붉은 색의 말.
- 유마말 : 자주 색의 말.
- 월라말 : 목덜미에 흰 줄이 있는 말.
- 청총 : 전체가 흰 말.
- 보인유마 : 붉지도 희지도 않은 말.
- 추가라말 : 가라말보다 검은 빛이 약함.
- 초말 · 초적다말 : 몸전체가 노랑고 등에서 배까지 붉은 줄이 있는 말.
- 연사라말 : 턱 밑에서 배 밑 부분과 다리까지 흰 말.
- ㄱ라말 : 보통 유마말과 비슷하고 누르스름한 말.
- 자류마 : 새빨간 말.

7) 기타

- 지슴매다 · 검질매다 : 김 매다.
- 약돌게 : 목동들의 점심그릇을 담는 기구.
- 예놈 : 일본 사람.
- 예배 : 일본 배(船).
- 유리전 : 조금 전.
- 코시 : 산이나 들에 갔을 때 식사 하기 전에 음식을 캐우리는 것 (조금 던지는 것).
- 목재동산 : 목자들이 놀던 동산. 당시 천민이었던 목자들은 國馬를 관리했음.

地名

指導教授：沈 汝 澤

班 員：高 昌 根 (2年)

玄 昌 國 (1年)

地名은 그 調査를 통해 어떤 마을의 地理的 條件이나 生活狀態, 言語의 變遷 따위를 살필 수 있다.

대부분의 地名은 그 構成이 地形의 性質을 알 수 있는 添加素와, 形態를 區別할 수 있는 基幹素로 되어 있다.

- | | |
|---------------------|---------------------|
| 장원밭(성읍리 1562번지 일대) | 동곶지밭(성읍리 291번지 일대) |
| 속돌밭(성읍리 1640번지 일대) | 물통밭(성읍리 1757번지 일대) |
| 성제동산밭(성읍리 218번지 일대) | 막대이굴밭(성읍리 205번지 일대) |
| 조근안밭(성읍리 2475번지 일대) | 물구렁밭(성읍리 20번지 일대) |
| 진흙밭(성읍리 205번지 일대) | 누룩낭밭(성읍리 1808번지 일대) |
| 양터굴밭(성읍리 1783번지 일대) | 대선술밭(성읍리 317번지 일대) |
| 당동산밭(성읍리 2067번지 일대) | 동박낭머들밭 |
| 올레난밭 | 젓단아진밭 |
| 올렛밭 | 안넙은밭 |
| 밭넙은밭 | 질진밭 |
| 갈매못밭 | 창고앗밭 · 창밭 |
| 잡탈밭 | 왕노린밭 |
| 흑불근동산밭 | 월님얹는모루밭 |
| 왕메왓밭 | 물곶는밭 |
| 흑통밭 | 할미무근가름밭 |
| 큰밭 | 산짓당밭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승전등얼밭	가게비통밭
벤재리동산밭	대선밭
서문통밭	구시통밭
문두물밭	망동산밭
알망동산밭	논동산밭
닥남밭	우러물밭
진물밭	창고앗밭
석질왓(성읍리 919번지 일대)	숨꼴왓(성읍리 1775번지 일대)
평이왓(성읍리 1750번지 일대)	빌레왓(성읍리 536번지 일대)
메마뽑지왓(성읍리 606번지 일대)	원생이터왓(성읍리 985번지 일대)
가족물도왓(성읍리 513번지 일대)	세기또왓(성읍리 517번지 일대)
정의또왓(성읍리 50번지 일대)	탈왓뱅뒤왓(성읍리 405번지 일대)
고른잣또왓(성읍리 325번지 일대)	불기도왓(성읍리 25번지 일대)
남재기왓(성읍리 1796번지 일대)	엄다리또왓(성읍리 2970번지 일대)
안뱅뒤왓(성읍리 2453번지 일대)	남비왓(성읍리 1344번지 일대)
역구리또왓(성읍리 2020번지 일대)	가게터왓(성읍리 1981번지 일대)
영내왓(성읍리 1800번지 일대)	직쇠왓(성읍리 1589번지 일대)
광이왓(성읍리 1955번지 일대)	쌀물또왓(성읍리 1429번지 일대)
절터왓(성읍리 1680번지 일대)	빈뒤기왓(성읍리 463번지 일대)
흑장마루왓(성읍리 553번지 일대)	단체왓(성읍리 1624번지 일대)
마름터왓(성읍리 586번지 일대)	섬생이왓(성읍리 1622번지 일대)
신수왓(성읍리 1438번지 일대)	사포기왓(성읍리 1378번지 일대)
여게왓(성읍리 2159번지 일대)	영견이왓(성읍리 2160번지 일대)
자니마루왓(성읍리 1774번지 일대)	쿨맹이왓(성읍리 998번지 일대)
전천이왓(성읍리 1080번지 일대)	셋전천이왓(성읍리 1060번지 일대)
비오게왓(성읍리 1303번지 일대)	진일이왓(성읍리 1299번지 일대)
켓도왓(성읍리 1227번지 일대)	올라니왓(성읍리 1090번지 일대)
시그니왓(성읍리 1106번지 일대)	장귀도르왓(성읍리 1378번지 일대)
사공이왓(신평리 지경)	종내미왓(신평리 지경)
지게미왓(삼달리 지경)	득구집터왓(난산리 지경)
수장잇또르왓	고장낭불미왓
질게질터왓	너부모왓
암넛도왓	동화구렁이왓

濟州島部落誌(Ⅳ)

정낭구렁이왓

뒷뱅뒤왓

압뱅뒤왓

굴집터왓

진물고왓

진팽이굴개왓

장방구렁이왓

여문서채왓

수영팻(성읍리 190번지 일대)

관또왓

문우당터왓

거뒸왓·거미왓

새케왓

구심물캐왓

번짓도왓

오물뱅뒤왓

돌팻

구렁팻

뒤통위원(성읍리 605번지 일대)

큰위원

한막슬위원

도리위원

강계위원

압뱅뒤(성읍리 985번지 일대)

탈왓뱅뒤(성읍리 1721번지 일대)

뒷뱅뒤

오물뱅뒤(성읍리 2250번지 일대)

안뱅뒤(성읍리 2452번지 일대)

새양물뱅뒤

춤지름할망토갱이

안토갱이

할망토갱이

올렛토갱이

소랑토갱이

빌렛동산

윤남동산

대도동산

고곶동산

굴멩이동산

목지동산

쇠죽은동산

원님앉는막루동산

서개동산

구진술동산

가메기동산

당동산

전천이동산

큰동산

왕메왓동산

탁남밭동산

원생이터동산

동개동산

되나무동산

거리안질동산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불기도동산
능쟁이동산
섯성제동산
흑불근동산
수산도동산
난미또동산
무선돌동산
진마루동산
임맹이마루동산
자니마루동산
안진마루동산
밧진마루동산
광이마루동산
명명마루동산
남재기동산
누룩낭동산
문두물동산
논동산
사우니장도동산
거옥대동산
답다니동산
바수매동산
초남동산
주중명채동산
다도릿동산
종내미동산

본지오름
장자오름
설오름
가시오름
좌범이오름

용노리동산
동성제동산
고른잣도동산
원두왓술동산
육굴동산
공문동산
대선술동산
진남못동산
진흙동산
벤자리동산
양터굴동산
조동산
아도굴동산
불래낭덕동산
쌀물도동산
분토왓동산
협데기벌론동산
진물구왓동산
황통지동산
가계터동산
중죽은잣도동산
제석제동산
진팽이굴동산
평수마루동산
올라니동산
원남계동산

백악이오름
무썩오름
갑선이오름
모구리오름
궁대오름

濟州島部落誌(Ⅳ)

동꺼문이오름
손지오름
통오름
영주산
남산봉

여꾸릿물
압내물
산짓당물
남은셋내물
쇠깃도물
양간내물
산넷도물
너분물
늑남도물
섯수물
굴멩이물
동고랑통물
정내미소물
소양물

갈메못
너부못
창고앗못
을한도못
문두물못
용노린못
안밭못
다도리못

남문통
가게비통
뒷통

문석이오름
이기네오돌
아부오름
돌산
독자봉

가죽물
깨미물
생깃물
대섯물
말물
툇물
노린빌레물
시끄는물
올라니물
시그니물
허워리통물
꺾메소물
방죽물

논동산못
시돈이못
알게기못
웃게기못
여처리못
대돛못
진남못

서문통
뚝부리통
백반통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여치리통

암넛도
가죽물도
고른жат도
접맷도
대선술도
불래남도
대도
관도
빌레넛도
새오름жат도
엄더릿도
역구릿도
난밋도

성윳골
서문골
남문기골
막은골
사포기골
향교골
빌렛동산골
닥남밋골
객사골
왕돌목골
동골
생기골(鄉校)

중죽은жат도
올한도
파레비жат도
뽑짓도
켓도
불깃도
쇠깃도
늑남도
산넛도
쌀물도
번짓도
수징잇도
정윳도

옥골
서골
상골
하골
뒤통골
창뒤골
아두골
군기압길
동문골
뚝부리통골
벌원골
남은골

원생이터(성읍리 985번지 일대) 가게터(성읍리 1472번지 일대)
게장터(성읍리 1591번지 일대) 절터(성읍리 1680번지 일대)
모름터(성읍리 1628번지 일대) 종채기터(성읍리 1642번지 일대)
넙은터(성읍리 1622번지 일대) 문우당터(성읍리 162번지 일대)

濟州島部落誌(Ⅳ)

굴집터(성읍리 1611번지 일대) 거밋집터(성읍리 1497번지 일대)
짐계집터(성읍리 2127번지 일대) 불컨터(성읍리 1403번지 일대)
득구집터(남산리 지경) 양씨터

동박낭머들
사우장머들

불귀머들

능쟁이술
원두왓술

대선술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說 話

指導教授：姜 根 保
班 員：吳 益 三 (4年)
李 仙 姬 (2年)
梁 政 植 (1年)

口 述 者

김 인 방 모 친 (83세)	상 수 할 머 니 (81세)
송 기 준 (남, 79세)	고 용 희 (남, 79세)
강 석 윤 (남, 71세)	양 갑 순 (여, 71세)
김 인 방 (남, 59세)	김 인 식 (남, 31세)

目 次

- I. 地 名 說 話
- II. 人 物 說 話
- III. 信 仰 說 話

本項은 調査對象者의 口述內容을 標準語로 고친 6篇과 方言 그대로 表記한 10篇의 說話를 한데 합쳐 묶어 놓았다. 그래서 方言으로 表記한 說話의 標題 다음에는 <原語>라 添記했다.

그리고 方言의 表記은 語法이나 이야기의 內容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標準語의 對譯이 並記되어야 할 것이나 紙面關係로 不得已 이를 略한 것이다.

I. 地名說話

濟州島部落誌(Ⅳ)

1) 設村由來

城邑里는 1423년 정의현 현지로 되기 전에는 '이월이'·'득갱이'라 하는 봉천수를 중심으로 '뒷통리'·'둔부리'·'화월이'·'진사리'·'소진이'·'영천이'·'별원이' 등의 자연 부락이 이미 설촌되어 通稱 '진사리'로 불렸다고 한다.

旌義縣廳은 원래 烘里에 있다가 古城으로 옮겼는데, 古城은 倭寇의 침탈이 심하므로 다시 城邑으로 옮겼다고 한다. 當時에는 城邑이 適地인지 論議가 紛紛했었는데, 某僧이 城邑地勢는 兵火不入地요, 南山峰이며 瀛洲山 등 漢陽之地라 해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송기준옹, 남, 79세)

2) 거옥대 <原語>

거옥이엔 현 계, 저, 활 모양으로 맨드러설란, 그디 땔(竹) 무엇주게. 땔 무어서 그놈을 꽃아설란, 방사, 방사용(防邪用)이주게. 여기, 이, 엔날은 땔 화불입지라하고 헤설란, 거, 모도 그런 방사식으로 헤설란, 밧담이니, 머, 거옥때니, 이게 다 방사하는 방법으로 현 거니까. 거옥은 세와났주. (송기준옹, 남, 79세)

거옥때가 어떻게 허니간, 그것이, 이, 지금도, 이 굴공동 ㄴ뚝 딴 가민 남(木)으로 세워진 게 잇수다젠, 지금도. 이 구룡동 앞이, 이, 세와져, 그것이 뒹이고 허니간, 이, 그 부락에, 이 사기(邪氣)를 방지하는, 그, 거세집 주게. (강석윤옹, 남, 71세)

3) 팔로담 <原語>

또 여기 그 아렌 가민, 팔로답이라고 현 거세기가 이십주게. 이, 젓, 팔리(官吏)엔 쓰는 관짜 허고, 이, 저 종노(奴)째. 어떻게헌 팔로답(塔)을 저거 세웠능고 허니간, 팔로답을 큰 고진 성(城)젓지, 막, 이 집만이 짜여난 잇수다게, 지금도. 왜냐 헐 적에면, 여기 정이 군청 잇는 때에, 이 사령 ㄴ뚝, 그, 저, 그 관청에 부속된, 그, 저, 사람들이 하도, 이제 역세 거든 양. 잘, 이제, 그 옷사름 말을 잘 아이 들으니간, 그게 무슨 이유로 안 들은고 허니간, 이 공문(公門)뚝산 아질 적엔 밍외엔 현 산(山), 저, 가시리(加時里) 알력적에 매오름을 뵈이니간, 그걸 져다고 해도, 밍오름을 막은 겹주, 그걸. 여기서, 이제, 그 매오름을 못 보게. 돌로 싸앗주게.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썩음엔 흑 담아실꺼라, 베갯디서 보기는 문딱 돌이우다게. (강석윤옹, 남, 71세)

팔노답이 일전이, 상고예 말여, 예, 아주 예엔날, 팔노, 원, 그 계급이 팔노, 아전 헐 꺼 끝으면 차이가 잇단 말여. 팔노엔 헌 건, 이 관가에 종놈이고 말여, 아전이엔 형 건, 이, 여기 팔니덜이지. 이방 이하로, 이방, 형방, 머, 감상이니, 무슨, 호장이니, 벤비장이니, 이런 게 다, 그, 그런 아전인디, 월, 근본은, 계급이 심헐 때는, 계급을 바서 팔노가 아전안티 반드시 머릴 숙여야 /siugiaia/ 형편이라. 현디, 원은, 이 팔노덜이 성세가 승혜노니까, 아전덜이 팔노안티 스파를 헛단 말여, 성세가 약혜노니까.

허니깐, 어느 중이 와서, 이 지셀 보고설란, 저기, 저 오방에다가 메화라는, 그, 저 표선오름이라, 매봉. '거기가 오방으로 뵈오니깐, 그 살기로 헤설란 팔노가 약혜진다. 허면, 저기, 저놈을 막기 위해설란 답을 싸면 제대로 계급이 발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허니깐, 이제, 아, 모아설란, 아전덜이 글 싹단 말여. 밤 들영 강 보민 팔노놈덜이 강으네 그자 몬 허물어 버리고, 아, 즈기 성세를 늘린다고 헤설란, 아, 밤이민 자꾸 허물꼭 허는디, 그, 멧 번 득투면서 그놈을 싸넛간, 그 뒤로부터은 계급이 발라설란 아전을, 춤, 높으게 그대로 아전대로 허꼭, 팔노덜은 팔노대로 헤설란, 그, 하인질을 헛다고. (송기준옹, 남, 79세)

4) 천년수 느티나무

이 마을 북판에는 큰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듯이 서있다, 그 수령이 천여년이라고 하는데, 워낙 오래된 나무여서 속이 텅 비어 있으며, 그 속에 고인 물은 눈병을 고치는 데 쓰인다고 한다.

이 나무에 순이 날 즈음에는, 동서남북 중 제일 먼저 순이 나는 방향에 풍년이 들며, 중앙에서부터 싹터오면 성읍리 전체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舊韓末에 김면수라는 군수가 부임했었는데, 그는 유출이와 유득이라는 두 아들과, 금전이 · 복돈이 · 유행이로 불리우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김 군수가, 느티나무 가지가 너무 자라서 현청에 드는 햇빛을 가린다고 하여 그것을 잘라 버렸더니, 그로 인하여 딸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며, 그 후로는 이 나무에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전해오는 느티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 제16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김인방씨, 남, 59세) <61面 參照>

5) 남산봉 <原語>

이,저것 고라 여기서는 남산봉, 남산봉 험니다, 저, 저 오름을 보고. 저기 어떻게 허니간, 우봉오리(上頂)에 갈 적에면 이렇게 둘레가 세밧디로 판 잇수다, 저게, 봉아리 우예. 그 늪이 어떻게 허니간, 그,웨구라고 헤가지고,거,일본늪으, 그, 도적절허는 베가 들어오지 안음네강, 엔날? 웨적, 먼 디,베, 먼 딜 뵈을 적이에며는, 먼디 웨베(倭船)를 뵈오며는 아래불을 싸고, 맨 알층에, 죽곰,이제,가까운 디 오라가민 중간에 불 싸곡, 막가까운 디,이제,해빈에 당도할 적이에며는 막 꼭지에,이제,불 싸곡. 엔날 햅주게, 햅. 먼 디 신 댄 알층에 불을 허곡, 중간에 올 적이민 중간에, 이젓, 허곡, 막 가까운 디 올 적이민 꼭데기에 허는 신포불입주게.

그렇게 헐 적이에며는 제주시예,그때는 영문(營門)이엿 험주 이? 제주시?경 아념니까게? 영문이라고 그레,이제, 전달을 헤압주. 지금 2뜨른 전화로 허지만, 전달허는 사름을 어떻게 허니간, 이 관가에서 스령(使令)이 나오라 가지고, 아무라도 들리는 사름, 이런,그자,가슴드레, 그, 지릅주게, 그걸, 그레 열낙(連絡)허는 걸. 쟁 가다가 어떻게 허니, 열낙을 가다가 죽는 수가 잇당 잇지 아념니까 양? 죽는디도 머리뺍을 저쪽드레 돌려서 죽우면 그냥 내뿌리고, 이쪽드레 머리뺍을 죽은 늪이 돌려시민 목을 베엿다고 허여, 죽은 사름을 목 베엿다고 허여.

쟁 허난 그거 전달허는 사름은,거,어떤 사름만 허는고 허니, 젤(第一) 못난 사름만 헛다고 허여. 좀 피양진 사름은 그걸 주며는,그,스령이 육과지카부다고 헤서 양, 젤 못난 사름안티만 가서,아,그 늪을 절러빈단 말이여 .(고용희웅, 남, 79세)

6) 현감 음료수 <原語>

그것이 어떻게 허니간,이, 만약에 날니(亂離)썸 날 적에면,성안에 물이 업쓰며는 큰 야단이 날 꺼 아니파?그러니간 보통 민간은 못 먹게 허고,이제,그,원만 먹는다고 헤도, 항시 원만 먹질 안 헤십쥬, 비상시에 먹는 물입쥬. 제난,그,그 통이 낭중에,이제,막 더러와전, 해방이 되, 춤, 이,저, 일제시, 그, 한일합방 되니까, 그, 수리허명 보니까 아래는, 저, 나 무관으로 허영, 문딱 쫓아십디다. 그 혼적 지금 그냥 십쥬. (고용희웅, 남, 79세)<叢報參照>

7) 시거니 <原語>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시거니라고 하여 가지고, 이거, 원, 우리 일생에 혼 번 뿌려남 뿐입지, 원, 생전 빨지 안여는 물이 잇수다, 여기. 이디, 시거니라고 해서 절로 이레 오는 디, 그, 저, 긴 내에 긴 물 잇지 안엽디가? 지금도, 이제, 음 료수로 해서 수도가 되여도 항시 그디서 빨레나, 이제, 모옥이나 못 허게 험니다게. 몬에 구시통·올하니엔 현 딘 모옥허여도, 그딘 안엽쥬. (양 갑순, 여, 71세)

저거, 그자, 양 펜이가 빌레 틈이우다. 이, 젓, 돌 틈. 경 허고 그디 줌, 이제, 물이 생수가 나는 모양인고라, 막 ㄱ물 때도 불 적이면, 여기, 한 삼 백 호가 될 적이면, 한 집이 어떤고 하니간, 물 세 강쟁만 먹어도 구백강 을 먹을, 구백 말을 먹을 꺼 아잇과? 물 질어도 그거, 거, 안 질어도 그 거. 그러니깐 줌 물이 나지 아년가 생각이 둥쥬게. 경 아념니까, 원? 엔 날 늑신네(老人)덜이 시거니라고, 그 지형이, 이, 저, 뛰인갓, 젓, 절로, 저쪽으로 들어온 곳 산, 그 내맥이 어떻게 허니갓 죽운 도야지 형치라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영 들어온, 그 지형이 어떻게 허니간, 죽운 도야지 형 치라고 해섯, 시거니라곳, 허여십쥬. (강 석운웅, 남, 71세)

Ⅱ. 人物說話

1) 참봉 이기선(參奉李奇善) <原語>

웨놈(倭), 일본놈 흑정이엔 현 놈, 이제, 그, 오란 이기 상점을 바십쥬. 계난, 저, 이기선씨가 볼래(本來) 어떻게 허니간, 보천교라고 헐 적에면 보천교가 아니고 그 뻔 선도지. 선도 신잔디다가, 그 패장으로 헤연, 막, 그 선도를, 막 주장을 헤난 사름입쥬게. 지금, 저, 예수당 집 젓, 집자리에. 경 해서 어떻게 허니간 일본놈을 죽여섯, 일본놈 돈을 빼여섯, 그, 여기, 막, 이제, 보리 승년되니간, 그걸로 보릴 사다가, 이, 궁민덜을 논바십쥬게 아주 공택이, 아주, 아주, 큼쥬게.

이제수날리(李在守亂離)라고 이서 나지 안헤수과? 이제수날리 때에 어떻게 허니가, 선교꾼을 죽이게 되니, 관덕청(觀德亭)에 심어가니깐, 이 남스각(南水閣)을 그 남스각, 그, 저, 성이 막 높으지 아념니까 양? 허니가 그 남스각 성을 샷갓 두 개 심언 휘엇다고 허여, 그 선교꾼을 죽일라고 허니. 경 해서 튀어서 어떻게 허니가, 이 고지, 지금, 이, 영아리인가, 어디, 이제, 현, 형 게 엄석송이란 사름이, 그 이기선씨광 원습쥬. 원순디,

濟州島部落誌(Ⅳ)

그 원수네 집을 갔서, 그 이기선씨가. 가섯 '살아도 자기 손에 죽을 것, 죽어도 자기 손에 죽을 꺼난 밋영 곡행을 설리 너 헐 대로 허렌' 허난, 그, 엄석송이가 그때 큰 도고리 쪽읍에, 이제, 그 이기선씨를 곱편 살렸다고.

경 위대헌 인물인 모냥, 우리는 잘 몰라도, 이, 그때 정이 군청 황순가 무스거 해서, 이 대장으로 헤가지고, 이제, 막, 아주, 정이 궁내에를 막 순찰허꼭, 그렇게 했다고, 엔날 어른덜 말이.

경 허연, 이제, 이디, 젓, 영아린가 사는, 그, 젓, 엄석송이라고, 이, 젓, 육씨삼(陸地人)광 원순디다가 그 사름네 집이 강 살았다고 허여. 그 사름이 곱쥬 두꼭.

영아리 화전(火田)입쥬게. 엔날엔 훈 가이 /üi/ 두 가이 /i/, 이, 저, 거세기, 그……. 경 헐 그디섯, 무슨 화전 케와그네 농서도 짓꼭, 또 무슨 남(木) 헤그네 무슨 낭그릇도 파그네, 그쟈, 생활 유지헐 나갓쥬.

그거 어떻고 허니간, 그, 불래 이기선이가, 그 선도 권리로 헤가지고, 여간 아니 협작꾼입쥬게. 협작꾼이나네, 그 엄석송이란 사름이 힘이 세엿던 모냥이라. 경 허니간, 그, 선도꾼덜이 모여들영 아마 엄석송일 줌 구탈을 헐던 모냥이라. 경헤연 원수가 뒗는디, 저렇게, 잘, 이제수날리에, 이제, 잡혀네 죽게 되니까 튀여서, 그, 원수네 집이 푸진집쥬.

그 이제수날리가, 그 선도꾼덜이 협작 만이 허기로, 그 날리가 나는 거 아니파? 경 허니까 여기 무능녀헌 사름은 선도에 강 부떠불 적엔 양, 선도에 강 부떠불든 관청에서도 가따을 못 헤십쥬게, 그 세력으로. (강석윤 응, 남, 71세) <63面 參照>

2) 변조방장 부인(邊助防將婦人) <原語>

그 할망이 어떻게 쎄난디, 엔날 오립썰라고 양, 오립썰엔 형 것은 어떻고 허니 목짱에 노아서, 이, 산썰쥬. 산썰(野牛)를 헤가지고 여기 심어 왔는디 글 칠해십쥬게. 칠연, 저, 남문궁 드르니까, 아, 이, 저, 여기, 그, 그때 스령이여, 이제, 무스거여, 부름씨 허는 사름잇, '아, 오립썰 나간다'고, 이제, 그, '저, 물 진 사름 비끼렌' 허난에, 그 할망이, 그 쉼뿔(牛角) 두 겹을 심언 꼭 허게 누르며십쥬겐. 허니, 꼭 허게 엽뿔썰헐 헐쥬.

들름뿔이엔 헐 게 지금 이십쥬. 저기, 상동(上洞)에 가면. 이늬이 지금도 드르는 사람이 십쥬. 겐뿔, 저늬이 똥그렁헐 뉘이우다. 똥그렁헐 늬인뿔 안이 들러난 사름은 드르지 못헐니다. 힘이 암만 쎄도 /ssiedo/, 요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령이 부족해그넵에. 그, 그 동네에, 이젯, 그, 드르는 사름덜 젊은이 볼 적에면, 잇, 이걸 다리에 영 붓저그네 그눔을 드르지 아녀며는, 그자 허민 민질민질해그네 잘 드르질 못헐주, 손잡이가 없어서. 그 할망이 그걸 물 허벅 저그넵에 오뽏오뽏 드러났젠 험쭈. (강석윤옹, 남, 71세)

객사 뒤에다가 침통엔 험 거, 그거, 엔날 무시거, 개토, 무시거싼디, 거 드르지 못험텐 험디다, 중통인가. 이 청년덜이 자꾸 그디만 들영 그걸 일 러세왔다, 모다들영 장난험으로 왕왕험 허난, '아, 이눔이 죽식덜 이거 줍 못자겠다'고 밤낮을 이렇게 허니깐이. 이 할망이 심설로, 이제는, 그걸 들러 단, 저, 남문통에 드러내껴벗젠 험디다게. 드러내껴부난, 이젠, 그것을 이젠 또 그 할망안티 소정헤여네 들러내젠 험디다게. (고용희옹, 남, 79세)

남편네를 어떻 두들겨 아니라? 두투며는 심영 지붕 우테레, 이제, 지붕 우터 뽕허게 드러내껴 붙며는, 아, 그 남편네가 지붕에 갓주게. 동네 사름이나 '아, 무시것 허레 올랐수가?' '나 호박타레.' (강석윤옹, 남, 71세)

3) 뽕인테 <原語>

뽕인테는 시내(市內) 하인이란 말여. 그디, 시내 하인인디, 사름이 무식 헤여도 지금 거뜨른 영특헌 사름이라. 아주 되양진 사름이여. 왜 그런고 허니, 그, 조방장(助防將)이 죽기 장수거든 말여, 저, 조방장이 가면 말여, 항상 사름덜 들러바. 조방장이 똑똑험 직허면 시중허고, 그렇지 안혀문 놀린단 말이지, 조방장을. 제, 시에서 조방장 한 분네가, 아, 왔거든. 마춤 겨을에 왔단 말여. 아, 그니깐, 그, 관청집이라 어딜 망논허고 그렇게 딱실 리가 어섯주게. 거, 머, 겨을이 방이 냉허니깐, 아, 거, 저, 방덜 좀 떼이라고 헤엿주게. 이눔이 어떤 장난을 헛는고 허니깐, 이제, 계란을 까 설란 그 속은 싸 먹어버리고, 기름을 네설란 종이를 이렇게 부엌단 말여. 그눔을 썸지로 척 넣고설란 이눔 불 부켰다. 저 안네다가 쑥 허게 놔설란, 아, 그눔이, 그 방이 딱슬 리가 잇서? 아, 추워서 못 견딘단 말여니까, '아, 인테! 그, 저, 굴묵게 가 보라고, 어째설라 추워서 못 전디겟다' 고 허니깐이, 아, 강(去), '아, 불은 잇세다. 불은 배롱헛습니다.' 영허니, 하, 그거 불 잇다고 허는디 어떻게 험 꺼여? 아, 그만, 그 고생(苦生)은 치러왔단 말여. 아, 그이가 우리 모양으로 술도 혼 잔 먹곡, 이런 분네니 까 조방장쭈 되니깐 엔날은 식서를 헤가는딛, 밥을, 혼, 아주 물쳐 익게

죽모양으로 밥을 멘들아 갓단 말여. 아, 그, 저,저, 밥을, 그, 그건 강조방장안티 그르멘.

아, 그렇게 얼뭍여 놓고, 그이가 술 먹다가 속이 썹 씨리니깐 좀미움을 쭈워 오라고 헛단 말여. ‘아,예!’ 들어와서 미움을 잘 멘들아 가지쿨란, 아, 그놈 팔려놓고설란, 그 늑은 식어가니깐 우이 겹질 입어설란 부작부작허게 될 거란 말여니까니, 썩조을/ssæŋčō-ŭl/ 헤단 우이 싹 빼연 상에 넣고설란 들러갓단 말여. ‘미움,애, 좀미움 쭈어 왔습니다’허니, 하,보니까, 아니, 썩조를/čheŋčō-rŭl/ 놓고설란,그냥, 아, 사발에 넣고 가져갓거든. 허니, ‘하, 이놈아 이거 어디 먹겠느냐?’고. ‘저, 아,조미움 썩오라고 허니깐 춤말로 조을 놓고 쭈어 왔느냐?’고 허니까, ‘게,조미움,저, 쭈워 오라고 헛 절게, 홀 쭈 잇습니까게? 거,조움 씨어 갓습니다’말이지. 아, 이제, ‘아, 너나 갓다 먹어라, 아, 나 먹을 쭈 업따’고. 아, 보라 허듯이 이제 앞에서 숟가락으로 우이 꺾질 싹싹 걷어부니깐 침 폴폴허게 팔려논 미움이란 말여. 앞이서 이놈이 훌쩍훌쩍 먹으니, 이, 자, 하인놈 조기가 물려준 상을 하인놈이 명는 걸, 먹꼬 싶으긴 답답허지만 달라고 헛 쭈가 잇서, 체면상? 그만 내버렸주게.

호 번은 닥을 통고음 헤오라고 허니깐, 통딱을 헤오라고 허니깐, ‘예!’대답을 헛다. 이놈이 닥을 잡아가지고 잘 단장헤연 잘 솟앗단 말여. 닥터럭을 좇어다가 닥 우이다가 성덕우이 뽕그르이 찢러 낫주. 아, 게, 상에 턱 들러가설란, ‘통고음 헤왔습니다.’ 아, 보니까, 그,털체 그냥 솟아갓단 말여. ‘하, 이놈아! 그,저,어디, 아, 그저, 닥을 통고음 헤오라고 허니까 털체 솟으라고 헛느냐?’고. ‘통구임이 어떤 게라마슴? 그쟈, 독그메로 솟는 게, 그자,통구움 아이라마쌌?’여난, ‘아, 너 갓다 먹어! 거,안 먹겠서’허연, 아, 그냥, 그, 또 물리니깐 밑에 혼쪽에 가 앉안, 턱살살 뽕아동설란, 아, 그늑을 복복 뜯어 먹으니, 아, 먹고 십찌만 또 달라고 헛 쭈가 업단 말여. 이놈안티 만날 얻어 돌린단 말여.

한 번은 잠데엔 형 건 밧 가는 쟁기. 거 시예선 귀허거든. 거 서귄(西歸)와설란 그늑을 하나 멘들곳, 자기집이 쟁기가 업쓰니깐 이늑을 멘들아 놓고, ‘아, 너, 거, 뽕인테! 거, 저, 우리집이,이,쥬길 지여가라’고 허니깐, ‘예!예, 집을,원,잇어부러설란 모르겟습니다’허니, ‘웨, 그,큰대문 난 집이 아무 모퉁이로만, 그,큰대문 달은 집이,거, 우릿집 아냐? 너 혼 번 안 가왔나?’허니깐, ‘예! 알겟습니다’이늑이 질머지고 갓다.

질머지고 가설란, 이,대문 안네 가설란 이눔이 ㄱ루 지언가니깐 문이 걸린단 말여. 일로 각 쿵! 질로 각 쿵! 허면설란 역불,그자,문짝을 울리고 있어. 아니, 그,스령이 나와설란, '너 왜 어떤 늑이, 아, 와설란, 이, 때문에 와설란 이렇게 장난을 허느냐?'고 허니깐, '말도 말라고, 우리 장수님이,이,큰 집이, 큰 대문 달은 집이 지어 가라고 해설란 지어 왔다'고 '허니깐 말도 말라'고 헌단 말여. 게, 안네,그,사또가 들어가지고 '웬늑아냐?'고 허니깐, 아,서귀 진줄놈이 와설란 ㄱ기 장수님이,아, 거, 잠텔 지어 가라고 헛다고 해설란 이디 오란, 아, 다문잇, 때문에다가 부다치고 저 장난을 허고 헛습니다' 말이지. '그넝 궤썸헛 늑이라'고 허니, '그럼, 그, 저, 조방장 싸지 못허겄다고, 그넝 퇴지해볼라'고. 그,조방장을 구만 쫓아버렸주기.

전디 여기 성음니 출생인디, 저, 강칩 출생이라고, 아, 거, 새로 가니깐 이 늑이 역시, 아, 사람얼, 이, 들러본단 말여. 밥을 해오라고 허니깐 밥을 아주 익게, 익게 죽 모양으로 팔려 갓단 말여. '아, 이거, 저, 오넝은 밥을 지터보니까 이거십니다.' '음, 이거야 먹어서 소화가 잘 되설란 하게 허느니랴.' 아,그만 뒀단 말여. 또 다, 다음 기회 식서는 밥을 아주 생밥을 해갓서. 생뺨,생썰로 해가설란 '아, 오넝은 밥이 선 세우다.' '그레여? 밥을 그렇게 선놈을 먹어야 뱃심이 든든허느니라' 영허니깐, '오, 그만허민 요거 ㄱ저땡길만 허큰걸.' 헛 그 사름 말은 잘 순종허드레, 아젠.

아, 그 뒤에 예배(倭賊船) 들면, 절녕, 전통이라고 해설란, 저기, 서귀에 만일 예배가 들면 전통을 일로 아져오는다다가, 그, 보고서주게, 가져오는다 엔날 범아 그놈을 가져설란 사람이 불행으로 죽게 되여서, 이제, 위쪽뜰 향해설란 누워서,죽어서면 허려니와, 만일 이렇게 되돌아 뉘설란 ㄱ기 고향쪽으로 돌아누어서 죽어서면 죽은 사람 목을 베,끈엇다고 헤여, 범이. 그러닛간 어떤 사음을 망논허고, 저놈을 가져 나오는다 앵기면, '이거 절녕(傳令) 가져 가라'고,게면 그놈은 받아낭은 벨일이 이서도 아니아져오는 뺨이 엇주게. 이 사람 만나민 이 사람안티 전허곡, 저 사람 만나민 저 사람안티 전허곡. 아,조끔 뭇언 늑은 그냥 사람 안기면 그레 전수혜등, 원, ㄱ진 돌아나부린단 말여.

아, 그,전통을 가전 이젠 호 번은 오단, 서귀, 이, 저디, 이, 베미, 벨진밧이라고 큰,넓은 밧이 잇는 디가 이서. 아, 그,큰 밧인디다가 사람이

濟州島部落誌(Ⅳ)

호 이십명이 앉아설란, 부인들이 앉은 검질 메고 잇섯단 말여. 아, 그, 부인덜이 말허길 ‘아, 절로 뽕인테 오람쥌. 거진말을 잘 헸다고 허니갓, 거진말이나 하나, 호 번 허고 가라고 존짜’고 허니가, ‘아, 좋텐’ 헨, 아, 이레 부지런이 오라가니까, ‘뽕인테!’ 허영 허난에 ‘예!’ ‘거진말이나 호 썸 혜동 가’ 영 허난에, ‘거진말 헸 저르 없다’고, ‘전통 가정 가니깐, 아, 이거, 거진말 헸 저르가 업따’고 허닛가, 아, 거기, 그, 검질 메던 사람은 망한이 각시노라, 망지기 각시노라, 이런 사람덜여. 허니, 그, 예베 들은, 그, 전령이 난디, 이제, 망한이, 나니까 잘못허면 그건 소형이란 말여, 침, 사형 집행을 당한단 말여. 큰일났다고 혜설란 그자 와르르르 나가설란 다 지네 집이 돌아갓서. 하, 요오란 보니 편쩍 거진말여. 아, 뒷날은 다시 모안, 아, 검질 멘디, 저넴이, 이, 돌아가고 잇거든, ‘아, 그, 거진말 그렇게 허고설란, 아, 우리 어제 검질 비엿다’고 허니까, ‘아, 거진말 허헨 허는 걸 그진말 아넴네까?’

그런 피를, 그, 사람이 무식헸지마는, 그, 그 당시에, 그 뽕통수를 보면 그 늬이 참 영리헸 늬이라. (송기준옹, 남, 79세)

아마 조방장이 무신 다른 베실을 헤볼라곤 해서 저늬를 육지에 드란 나가서, 서울에 올라가네, 저늬가 자발(戲)을 질질 자꾸허다 보니까, 호 수 업썸 이늬 보네야 쓴다고. 그러니, 등어리에다 글을 딱허게 쓰면서 ‘이늬 가거든 아시 죽여볼라’고, 이 가져젠 기냥 돌려보네고, 돌려보네니까젠, 돌아오다가 질레서 우연헸 사람을 보아지니까, ‘날, 나 등어리에 보라, 무슨 글을 써졌느냐? 한 번 보헸’허니까, ‘영, 집이 가거든 죽여볼라곤’ 헸다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이늬를 밀어두고, 나 곤는 양 써달라’ 이렇게 헸서. 이젠젠 밀어두고 뭇엔 쓰느냐곤 허니까, ‘과거를 허지 못헸 때예, 허지 못허게 되엇다가 뽕인테 뽕분에다 과거를 헸으니까, 적은 딸에 사위를 삼아 가지고 압빳디다 집을 세여주라’고 현즉, ‘영 헸 써달라’고 허네 오란 ‘아, 이거, 무사, 뭇이사 등어리에 써주멍 집이 가헸 헸떠다’ 허니까, 아, 보니까 그렇게 써졌거든. 허니까, 아, 거세 형제라 호 수 없이 죽은 딸에 사위 삼앙 압빳디 집을 지엿다 헤여.

오란 보니까 그짓까릴 헤냈시니까, 이젠, 조방장이 이늬를 죽여부릴 수 뽕이 업따고. 이늬 보고 약둘게, 사람 들어아져부멍, 들어아져멍, 너, 머, 약둘글 뗏이라고. 약둘글을 뗏이니까, 그자, 들어아자 가지고, 우코 확 호 르싸부니까 뽕통이 업꺼든. 이젠 이늬를 잔다예 돌아 가지고, 어디, 강물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에 가 데껴불라고 현, 이제, 가는데다 중간에서 우여현 친구가 만나 가지고, 거, 술을 호 잔 먹으라곤 허니까, 조방장은, 이제, 술 먹으레 들어갈 땐 그놈을 나뭇가지다 톱 걸어돈 가부렸다. 가부리니까, 아, 이제, 어떤 사름잇, 그, 눈 한작 까진 사름이 잇단 말여. 눈 한작 까진 사름잇, 이제, 넘어가당, 넘어오라 가으니까 /kaŭni/, ‘나 눈 발랐소! 나 눈 발랐소!’ 이러니까 이놈이, 영, ‘아, 눈 발랐다’고. ‘어째서 그러냐?’곤, ‘내가 당신거찌 눈 한작이 까졌는디 여기에 돌아지민 눈 바른다곤 헤길레 지금 여기 돌아진 중인디, 원, 발르고, 아이, 잘, 바른진 모르겟다’고. 건 도비삼권디예(裸負商), 그, 모르겟다곤 허니까, 이제, ‘아, 눈 발랐다’고. ‘게문 나도 돌아지멘 그렇게 바를 게 아니냐?’고. ‘나 발라시멘 즈기도 돌아지멘 바른다’고. 게 이놈은, 도비삼근은 이제 짐 부려와두고, 그, 그놈을 클러와서, 이제 ‘그러든 베놓구텐.’ 그 약둘게엿 돌아멧, 도비삼근이 그디 돌아졌거든, 돌아지니깐 이놈 도비찜, 그놈 지영 오단 놈을 지어가니까, ‘웨 지느냐?’고. 헤연 ‘베여보젠 지노라.’ 겐 걸어가니까 ‘웨 가느냐?’고. ‘걸어보젠 간다’고. 이렇게 그놈은 도망헤부렀단 말여. 도망헤부리니까 조방장은 나오란, 헤서 으레 벙인테 담어진 줄만 알아가지고 그대로 몰 탄, 이제, 돌아나가니까, ‘아이구, 난 액(厄)육은 유기 장시우다’고. ‘아니, 액육은 유기 장시엔 형 게 그때 나온 말이랴?’고, 이렇게.

그놈이 경현 땡기다가, 조방장은 강에다 던져부려 벙인테 죽은 줄 알았는데, 호 몇 해지후(幾年之後)에는, 그, 조방장네 집이 왔거든, ‘아, 너, 어째서, 거기서 강물에 덕 켜는디 살아왔느냐?’고. ‘하이고, 그 안넌 가보니까 벅이 과랑과랑 나고, 바로 금 가뜰 것이 마흐니 잇습니다’고, 그 물엔 가서 이놈이 조게 꺼플도 모사 가지고 짹 뿌려놔거든. 뿌려돈 와가지고 그런 말 헤가, ‘실찌가 그렇더냐?’고. ‘하이고, 가보십서. 가보면, 머, 지금까지, 그자, 그디 퍼럭허게 잇수다’곤 허니까, 조방장은 그것에 욕심내 가지고 ‘그러면가자’고. 헤네 조방장을 거기 가니까, ‘이 물에 들어가민 그 안넌 벅이 과랑과랑 남니다’고. ‘헌데 들어갈 때는 상통에 비치락을 달아매고 가십서’ 허니, 상통에 비치락을 달아매가지고 그 안네 들어가니, 물 속웁에 가, 게놈이 죽을 쭈 뺨에 업써.

이제는 집이 와가지고 조방장네, 원, 온 가족을 다 거느려 가지고, ‘하, 이거, 장수남은 저디 가서 워낙 금과 은을 쓸어내명 거세겟 햄젠. 속히 가족얼 드령 오렌’ 햄젠. 게서 허니까 가족덜이 전부이 갖거든. 가니까 사름은 아래 꼴라아져 죽엇지마는 상통에다 비치락을 달아매니까, 비치락 흔

濟州島部落誌(Ⅳ)

들흔들 놀거든. 노니까 ‘하이코, 비치락으로 쓰는 것도 흔저 들어오랑, 저, 술채만이 있다’고. 그러니깐 ‘흔저 들어갑센’헐, 역시 준부, 그,물에 빠정 죽여부렀다고 영헌 설(說)도 이서. (고용희옹, 남, 79세)

4) 송열녀 (宋烈女) <原語>

그,송열녀가,그, 그 집이 손(孫)이 이 집이우다. 헐디 이디에 육때조 될꺼우다. 그, 저, 할망입쥬. 게니깐 모친은 송씨고,아덜은,이,강 운째, 저,운동엔 쓰능 거, 왕길 운째, 혼 재 일름인디에, 아덜은 효조고, 어머니는 열녀우다. 게난,이, 저, 강씨,저, 족보에 완연이 나타남 잇고, 그, 저 지금, 저 앞이 드러오는 디 보니깐, 팔각뽕 잇지 안읍디가? 그게 그 할망네 애세끼를 모신, 그, 각이우다게.

열녀된 원인이, 그, 좀, 그, 남편네가, 이, 저, 행교에서, 이, 저, 부름썰 해십주게. 허난 간군허게 살아십쥬. 간군허게 살았는데, 이제, 그, 을쩍 남편네가 돌아가비난애, 돌아가비닛간 어떤고 허니깐, 그, 아주,수절을 지켰, 아명해도 얼굴이,좀,나왔던 모양이라, 송열녀가. 허니깐, 이, 행교에서, 이제, 부름씨도 허곡 허니깐 양반이 된 사름덜이 줄, 조르겐 헐꺼 아님니까젠? 허고 해도 까딱 수절 지케 가지고, 일생을, 원, 저, 홀몸으로 살고, 아주, 암전허게 사니까니, 관가에섯,열녀릇,그때는, 이, 이제, 중앙드레, 이제, 보해십주게. (강석윤옹, 남, 71세) <63~64面 參照>

軍校夫姓之妻 未詳其姓 而其夫死 守節孤居 一日 營裨因公事出村 見其姿色悅之 强與執手 給曰 舍吾賤人 惟君言是從 裨信之 遂釋其手 而去大叱曰 汝匪人也 人生天地間 自有定偶 汝何無禮耶 吾雖賤且婣 安敢汚哉 吾不忍以此手汚余一身 以斧斫之 因大哭而死 事 聞旌閭 烏川「鄭(尙書)實」得聞古語 載於周洪兩傳之後 (續修三綱錄全羅南道旌義郡烈行條)

<康運> 信川人監司「永」後 展力副尉「時漢」子 天性篤孝 在襁喪怙 及其學語 奉慈母如嚴父 而常恨未見父顏 及長推父蹟 啓棺歛屍 哭泣祭奠 一如初喪 衣裘結廬 三年守墓 繡 旌閭 載邑誌(續修三綱錄全羅南道旌義郡孝條)

5) 李白의 할머니와 다메기 강아지

옛날,성읍에 흥년이 들 때는 김녕 등지에서 보리를 꺾다 먹었다고 한다. 李白의 할머니는 자식들이 죽고 난 후 혼자서 살았는데, 하루는 보리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쌀을 꾸러 김녕에 갔다 오다가 '다메기'라는 냇가에서 울고 있는 강아지를 보았다. 하도 불쌍해서 안고 와서 키웠는데, 쌀이 부족하여 자기는 굶으면서도 강아지는 잘 먹었다고 한다.

하루는 火田 사람이 지나가다, 그 개를 보고 할머니에게 팔도록 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팔지는 않고 빌려 주겠다고 하니, 그 사람은 노루 사냥을 해서 잡으면 다리를 하나씩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끌고 가려 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목을 걸지 않고도 그대로 따라 간다고 하며, 다메기에게 따라가도록 했다.

어느날 노루를 잡고 집에 와보니 이미 어두워졌으므로, 다음날 할머니에게 가져 가려고 다리 한쪽을 '고팡'에다 걸어 두었다. 그러나 다음날에 보니 온데 간데 없어, 할머니를 찾아가 얘기했더니, 어젯밤 개가 물어 왔더라는 것이다.

가을 추수 뒤에는 흔히 '오메기떡'을 만들어 먹는데, 하루는 이 떡을 만들어 할머니에게 가져 가려고 '콧박새기' (바가지)에 놓아두었는데 없어져 버렸다. 주인은 으레 강아지가 가져 갔으려니 생각하고는 할머니 집에 오는데, 떡이 길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있었다. 알아 보니 바가지가 약해서 한 쪽을 물며는 부스러지고, 다른 쪽을 물면 또 부스러지고 하면서, 그때마다 떡이 떨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겨우 두개만을 물고 왔다는 것이다.

그 후 할머니가 죽자, 그 개는 가마귀 동산에 있는 그 무덤에 와서 7일 동안을 짓어 대다가 산담(繞墳石垣) 위에서 죽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곁에 개무덤과 비석을 세워줬다고 한다. (양갑순씨, 여, 71세)

6) 어진 高刑房

고성방(刑房)은 직책과는 달리 매우 마음이 어진 사람이었다.

어느날엔가 소도둑 20여 명이 잡혀 왔는데, 수령은 고성방에게 다음날에 참형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고성방은 곰곰이 생각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20여 명씩이나 목을 베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님을 깨닫고는 그날 밤중에 몰래 옥터로 나아가 도둑들에게 자신의 손발을 묶어 달아 매어 '검질' (雜草)로 입을 틀어막게 하고는 도망시켰다.

다음날 아침 형방이 입실을 앓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이 겨우 옥터에서 형방을 찾고는 도둑들이 도망간 것을 알았다.

그후 어느날 형방이 제주 성내(城內)에 불 일이 있어 가는데, '들깨기

濟州島部落誌(Ⅳ)

목'(대천동)에 이르자 괴한들이 나타나서 타고 가는 말이며 전대를 뺏어 가버렸다. 날도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수풀 사이에서 갓옷(裘)을 해 입은 기골 장대한 사나이가 나타나며 '고성방 상주님 아십니까? 어디 가십니까?'하고 물으니, 오다 겪은 일을 얘기해 주었다. 얘기를 다 들은 사나이는 자기 거소에 고성방을 모셔갔다. 거기에는 여럿이 무리를 지어 쇠고기며 말고기들을 구워 먹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이놈들아, 이 분이 바로 우릴 구해주신 분이다'고 하자 형방에겐 얼른 떠오르는 바가 있었다.

그날밤 소굴에서 푸짐한 대접을 받고, 다음 날은 '베릿내'(別刀川)까지 배웅을 받았다. 성안에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도 다시 쇠고기며 말고기를 받았으나, 고성방은 이를 전부 묻어두고 왔다고 한다. (고용희옹, 남, 79세)

7) 名犬과 음흉한 도둑

김양민이란 할아버지에게는 사냥을 잘하는 개가 한 마리 있었다. 어느날 개를 데리고 오로(두더지) 사냥을 나가 몇 마리 잡았는데, 난데없이 도둑이 나타나 뺏어 가버렸다. 할아버지는 '을큰해서'(可惜) 개 보고 도둑이 빼앗아 가버렸다고 투덜대자, 그 개는 그 말을 알아나 들은 듯이 냄새를 맡으며 사라졌다.

몇 십 분쯤 후가 되자 사람 살려 달라고 하는 야단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가 가보니 개는 도둑의 덤미를 물고 탁 자빠져 있었다. 도둑은 다른 사람에게서 뺏은 오로도 다 주겠으니 제발 구해달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자기 지다리를 찾고 개를 풀어 주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지달皮와 개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물 구안장'을 차린 '호서(豪奢)한' 사람이 할아버지 집에 개를 사러 찾아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때 그 도둑이었다. 할아버지는 '개는 풀려 주겠는데 오후에랑 심어가라'고 하며 그 손을 방에 좀 있으라 했다. 할아버지는 '피쟁이'(白丁)를 빌어다가 개를 잡고는(屠) 개장국을 끓여 상을 들여 갔다. 그 손은 깜짝 놀라며 '어떻힌 계장을 헤설란 체려왔느냐?'고 하니, 할아버지는 우리 개를 죽여 국을 끓였으니 국이나 먹고 가라고 하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송기준옹, 남, 79세)

8) 조 孝子

조남숙은 幾十年前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孝悌誠忠하는 어진 이였다. 그는 부친이 큰 병을 앓자 밤을 새며 정성히 간호하고, 의원이란 의원은 물론 별별 약을 다 써도 낫는 법이 없었다. 그러자 조효자는 손가락을 끊어 피를 입에 넣어 드렸으나 덧없이 돌아가고 말았다.

조효자는 '조개터'에 아버지를 묻고, 그 곁에 여막을 짓고 '넋기'(川尾川)에서 돌을 날라다 산담을 쌓으며 3년상을 치른 후에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송 기준웅, 79세, 남)

Ⅲ. 信仰說話

1) 관청할망 <原語>

관청할망이라고 해서 저이들도 잘 압니까마는, 저겅 채암 갈려오기를 제주시엿 칠성풀이엔 헌 풀이 잇지 아넛광 양? 그디서 어떻고 허니간 딸이 일곱이 낳다고 허여마씨. 허니간 '너른 어딜로 가라, 너른 어딜로 가라' 헐 때, 행이넛, 이, 여기 관청할망은 아마 이 정이(旌義)로 보넛던 모냥이라마씨. 게니간 관청에 들리는 사름은 너나 없이 그 할망을 아주 우대험쥬. 지금도 이디 일본 재일동포(在日同胞)쫘은 오며는 벨 버려두고, 이, 일본서 문딱 쓸 싸꼭 이런 옷가지 허영 오꾸, 헤그넛 경험니다게.

요쪽, 요쪽에, 그, 그긴, 불래(本來) 못(侍)단 디는, 이제, 관에서 못 허게 허니간, 미신타와함으로 못 허게 헤부난, 이펜쪽에 부락민덜이 자그마니 집 지은, 지금 모상 이션, 조품, 이제, 그, 여기 사름도 아이덜이 학교에 입학을 허게 되나, 또 어디 출타를 허게 되나, 그런 때는 그 할망안티 다 니레 잡쥬게. (강석윤웅, 남, 71세)

제주시에 칠성풀엔 큰 할망이고, 이딘 셀 할망이고, 대정(大靜) 꼬을은 죽은 할망이고, 글로 알려험 따시 또 이 안으로, 저, 안꼬팡으로 들어그 넝엿 성젠(兄弟) 얻어 먹으험 허꾸. 오섯 일곱챗 딸은……. (양갑순씨, 여, 71세)

그 전, 거세깃, 용숫가에 큰 당이 우리 어린 때 보민 이섯는디, 그디도 할망 하나이 크게 갈녀갓쟁을 허여. 그, 용숫가에 보민, 그, 큰 당 잇지 아녀파? 그 당도, 이제, 그, 갈녀갓젠 허여. 딸 하난 창방할망으로 가실게고 심방덜 입에 멩거난 심방안티 드르민 거 잘 알꺼라. (강석윤웅, 남, 71세)

濟州島部落誌(Ⅳ)

그 할망이, 우리도 어른덜안티 들엇주마는 양, 그 연날은 어떻산디,이, 베슬허는 어른덜이 다 그디 오라그벙에 뵈영 가고, 또 그 할마니안티 오라가넌 꿈에 다 선물헤영, 저,대주(竹杖)랑 지푸곡 헤여그벙에, 저, 시내(市內)레,그,영먼(營門)더레 그때,그,송서(訟事) 가쟁 허면, 할망이 앞이나사그벙에 대주랑 지폐그벙에 앞이 가곡, 그,이,송서가는 사림도 할망을 우대헤여그벙에, 저디 오랑 우대헤그벙에 가민,또 송서도,이것젠 허고예. 경 허난 저 할마니가 그 전에,저,폭낭 씨러져벗수다. 그 폭낭 씨러진 디영 헤네 이치록 현 어게가 잇는디..... 다 아지당 짓지고 허난에 우리가 하도 칭원헨, 이제 저 집을 우리 부인네가 모여그네 뜰에서 짓쟁헤네, 경 헨 집을 지서벙에 시방 할망을 그디 앓다네, 춤, 우패도 잘 못곡, 견모산 잇수다.

게난 할망신디,원,그 연날은,이,관청에 땡기는 어른덜, 이,학교 출입허는 사림덜 거 밖엔 아니 땡기곡 허는디, 시방 군인이 막 너러지기로, 군인이 너러지로, 아니 땡기는 집이 업써 다 땡갑니다.

이제,아장 철리 보곡, 상 말리 보곡 현헨 허는 할망 아니파?

아, 그디 할마니안티 가그능에 점지는 게 아니고, 그디 가그능에, 저, 심방 아이 도라도 이녀때로도,이제,밥 지영 가그네 훈 밧드헨, 저, 메가 세 그릇이고, 훈 밧딘 또 낭푼니예 내다놓는 수까락 세 켜, 그건, 이제, 국뽕하인마씨. 그, 그자 낭푼에 훈디 거러그벙에 업지여 거렁 수까락 세 개만. (양갑순씨, 여, 71세)<94~98面 參照>

遺物・遺跡

指導教授：沈 汝 澤
班 員：高 昌 根 (2年)
玄 昌 國 (1年)

目	次
I. 有形文化財	VI. 烈女閣
II. 無形文化財	VII. 邑城
III. 蔡洙康清德碑	VIII. 烽燧臺
IV. 李奇善恤窮碑	IX. 安民庫節目
V. 金孝婦旌閭碑	X. 古文獻

I. 有形文化財

A. 指定文化財

① 城邑里 느티나무 및 팽나무

- 指定番號：天然記念物 第161號
- 指定年月日：1964年 1月 31日
- 面積：1,248坪
- 所有者：私有
- 所在地：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882의1 外 三筆
- 樹齡：1000年
- 指定事由：老巨樹〈書報參照〉

B. 地方文化財

① 旌義鄉校

- 指定番號：地方文化財 第1-5號〈書報參照〉

濟州島部落誌(Ⅳ)

② 旌義廳舍

○ 指定番號：地方文化財 第1-7號〈畫報參照〉

③ 녹나무

○ 指定番號：地方文化財 第3-1號

④ 돌하르방 12基

○ 指定番號：地方文化財 第4-2號〈畫報參照〉

C. 非指定文化財

① 縣城城址

② 古家屋

○ 城邑 1里 827番地 趙一訓氏 家屋

○ 城邑 1里 826番地 高平五氏 家屋〈畫報參照〉

(金榮敦; 「民俗村 指定 保存에 따른 指定對象 村落 概要 및 保存方向」, 濟州道 文化財課, 1977. 3. 參考)

Ⅱ. 無形文化財

A. 非指定文化財

① 民謠

② 謠言

③ 傳說

(金榮敦, 上揭書 參考)

Ⅲ. 蔡洙康郡守 清德記念碑

本碑는 城邑國民學校 後垣에 있으며 1908년에 建立되었다고 陰刻되어 있다.

五年恩霈 萬戶陽春
籍庫既狝 鄉社重新

재임 동안 백성을 은덕으로 흠뻑 적셔 주니, 온 마을이 봄 난 듯하고
호적을 새로이 다듬으니, 온 마을이 거듭 새로와치는구나.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或者는 旌義縣 傳掌記에 蔡公의 行蹟이 실려 있다고 한다. <畫報參照>

IV. 李奇善 恤窮民 記念碑

本碑는 俗稱‘객사꼴’路邊에 있으며, 1908년에 세워졌다고 새겨져 있다.

年凶夏交 米斗各分
飢者咸飽 一鄉蒙恩

해가 가물고 여름까지 겹쳤을 때, 米斗를 각자에게 나눠주니
주린자는 다 배 불게 되었고, 온 고을이 은혜를 입었네.

한편 전하는 말에 의하면 李參奉은 李朝末葉에 天主教의 선교꾼(俗稱
선도)노릇을 하며 當時의 치외법권을 악용하여 갖은 횡포도 저질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홀궁할 줄도 아는 義人이라고도 한다. <畫報參照>

V. 金孝婦 정려비

本碑는 1878년에 정려 되었다고 새겨 있다.

贈嘉善大夫戶曹參判趙命允妻
李婦貞夫人金氏之旌閭

풍양 조씨 세보에서 金孝婦의 行蹟을 엿볼 수 있다.

趙允永(命允)嘉善大夫戶曹參判 配貞夫人光山「金(氏)良謙」女 有卓異
之行 早值崩城之痛 每欲下從 但舅姑年高在堂 不敢辜恩 生事葬祭尤極 一鄉
莫不稱善 自洞報官 自官報部 既有褒揚之文 後光緒辛卯 判下綽楔之典 後
孫蒙其先蔭 烟戶雜役 特爲蠲減矣云云

VI. 烈女閣

이 비는 성읍리 남쪽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

숙부인 여산 송열녀 정려비

강 효자의 부인 송여인은 정의고을 안에서 이름난 미모의 여인이었다.

濟州島部落誌(Ⅳ)

어느날 돌아가신 남편의 무덤에 제물(상식)을 나르던 송여인은 호젓한 들길에서 마을의 건달에게 손목을 잡히게 되었는데 송여인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 자기의 손목을 칼로 찍어 정조를 굳게 지켰는데 이를 기려 열녀비와 열녀각을 건립하였다.

라 쓰여 있다. 신천, 강씨 세보 별록에도 그 행장이 실려 있다.

爲牒報事即到 使關內本邑里居 故烈女「千香」行誼實蹟 何如而何年旌閭是 旌 其子「康運」孝行實蹟亦何如 而癸未李御史時 成給完文是諭 役姓死生并以 縣錄 卽報亦爲臥乎所 其前後行誼實蹟 縣監親執考閱是乎則 故烈女千香段 本是校婢 爲妾於下吏「康時漢」 只生一子運 青年喪夫 送終如禮 不恤幼 孤哀 毀過度 誓以從死 仍爲自盡是遺 其子康運段襁褓失怙 僅得成長 推尋父墳 啓 棺歛屍 守墓迫服三年 哭泣一如初喪爲有知乎 康運母子俱以出天烈孝 城邑面 風憲 文報遂良去癸未年分自本縣牒報御史 而千香旌門段因該司關據壬辰年分 立之是如爲有遺 康運身役本縣免賤鎮撫 而丁亥年身死是如爲乎旌 康運復戶 完文段 癸未年李御史時 成給的實是乎等以緣由牒報事 已亥五月 日 縣 監「宋(公)重鉉」牒 <56面 參照>

Ⅶ. 邑 城

이 城은 고성에서 移廳할 때 최 치렴 목판관의 감독 아래, 3읍 주민을 출역시켜 쌓았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높이 13척, 城基가 2,520척이나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흔적만을 볼 수 있으며, 과거에는 12포대를 건설하고, 곳곳에 총구가 있었고, 동서남쪽에는 門이 있었다고 한다.

石築周二千九百八十六尺 高二十四尺 襲樞記云 今都安撫使「鄭(相國)幹」 巡至晉舍曰 宜立縣于此 太守「宋(公)遷」詢于小民 而民皆悅從 於是轉聞于上 因兵部之文 役三邑之民 乃命牧判官「崔(公)致廉」監督之 崔公度厚薄 揣高低 計徒庸 量事期 嚴以施令 勤以視事 峻弓家 峙三門 其城基二千五百二十尺 高十三尺也 始于癸卯正月初九日 訖于十三日 功甚神矣 (新增東國輿地勝覽 旌義縣城郭條) <畫報參照>

Ⅷ. 봉수대

봉수대는 남산봉에 위치하고 있다. 이 봉수대는 海濱을 따라 濟州監

營에 傳達된다.

소나무나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서, 연기나 불을 일으켰다고 하며 監官 1인과 망한이(망지기) 등이 있었다.

各烽燧有監官一人 望漢則一番立二名 南山東應獨子 西應兎山 (李元鎮耽羅志旌義縣烽燧條)

IX. 安民庫

정의현은 탐라 동쪽 후미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 땅이 바둑판 모양 좁고, 官이 實하지 못하는데, 邑에는 세 큰 폐단이 있으니,

첫째, 현은 동으로 왜와 거리하고 있어 뚝배로도 오갈 수 있으나, 夏凶時 저축해둔 군량이 없어 군인을 부릴 수 없는 것이고,

둘째, 현 땅이 부서부서해서 보리 농사가 잘 안 되어, 夏秋에 궁한 백성들은 선 곡식을 따서 먹으며, 이웃 고을에서 꺾다 먹거나, 따로이 환곡을 내어주어야만 되며,

세째, 현은 옛부터 騎步兵이 표고버섯과 백랍을 준비했다가 바치는데, 중간에 이것들을 양민에게 돌려대고, 또 이 백랍과 표고는 이 땅에서도 잘 나지 않으므로 감귤 등과 같이 쌀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떠맡은 무리들은 마구 민폐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동고의 예를 본따서 안민고를 짓고 매해 천석곡을 저축하면 봄에 나누다 남은 걸로 여름 때 군량을 쓰고, 추궁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목에는 건륭 38년 정월과 52년 7월 및 56년 2월에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부록되어 있으며, 총 14장으로 1면당(1page) 11행, 12자여가 手筆되어 있고, 가로 21cm, 세로 24cm이고, 훼손 부분이 중간 중간 있다. <旌義鄉校(城邑里所在)典校吳文福氏所藏>

安民庫新設節目

乾隆貳拾參年拾月 日 旌義

縣安民庫新設節目

右節目爲旌義一縣僻在耽羅
邑有大弊者三一曰夏無軍

東隅地小如枰官不成樣而
餉二曰秋有民窮三曰良戶

濟州島部落誌(Ⅳ)

蠟藥本縣東距倭島海程
縣軍兵本乏糧餉之可資○
而春○○○○○○○○○
急待變之需無一○○○○○
不別備者一也本縣土性浮燥
種牟僅僅備輸而夏秋之民
轉貸傍邑常食倍重之債若
之不可不恤者二也本縣舊有騎
中間變通移徵於良戶島中
箇皆有價米○減於公需至
因此而任掌輩家家侵督戶
劃則難以支吾蠟藥之不可不
…………) 備得皮穀壹千
名之曰安民庫千石之穀年年儲
足爲夏間軍餉之資矣此穀
足爲秋初救窮之物矣(後略…………)

至近敵船來往一帆可致○
倉所儲不過○○○○○○○
庫若○夏間○○○○○○○
禦形止寧不寒心夏餉之不○
麥不得成實耕播絕少 營庫
卽阻飢摘青蒸軟傷○新設
無別分還穀則難以料賴秋窮
步兵備納進上白蠟藥古而
凡百進上雖是柑橘等物箇
於蠟藥獨無定價白地徵出
戶刻責弊端不一若無別般區
別備其價者三也(……中略……
石別設一倉於會前大同之庫
蓄而春不分給作爲留庫則亦
分給若趁七八月麥絕之時則亦

X. 古文獻

<手筆本・寫筆本>

錦陽講案 本紙16張
東菴私稿五卷 本紙60張
毅清吳眞祚私稿 本紙76張
命理篇 1冊
儒胥必知 1冊
刻草堂詩餘小引 1冊
大明律 1冊
古文眞寶 1冊
呂氏訣 1冊
詩傳圖式 1冊
杜詩 1冊
唐賦集 1冊

東菴吳章猷賦集 本紙55張
金景五風月集
烟奇要抄 1冊
百年鏡 1冊
兵學指南 1冊
萬世曆 1冊
杜甫詩 1冊
小學大全 1冊
史略 1冊
栗谷文選 1冊
小詩唐音 1冊
神應經針灸篇 1冊

詩輯錄 1冊
簡室○ 1冊
詩藁四 1冊
金萬英稿南圃集 1冊
兒戲原覽全篇 1冊

鍼灸經驗方 1冊
臟腑總論 1冊
葩經圭壁 1冊
萬寶全書抄 1冊
南陽訣 1冊
(吳文福氏所藏)

< 印 本 >

雞林世蹟 卷之五
聖蹟圖
田炳圭 東詩精選
博物志
石峰草千文 萬曆丁酉刊
聖嘆外書 1冊
文谷集
池氏鴻史姓氏韻彙
張隱庵·馬元臺註 靈樞經
明心寶鑑 乙巳仲冬完折刊
小學諸家集註
武橋新刊 小學諺解
歷代將鑑博議
唐詩正音
通鑑
詳說古文真寶大全
詩傳大文 卷上下
禮記
大學諺解
孟子
孟子諺解 甲申新刊 嶺營歲板
書傳大全圖
論語集註大全

朝鮮寰輿勝覽
池錫永 字典釋要
增補天機大要 上下卷
金容起 檀典要義
中庸問目 1冊
劔南詩稿 1冊
奇門遁甲 4冊
張介賓 張氏景岳全書 1冊
事文類抄
宣政殿小學訓義凡例
小學集註
四禮便覽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史記英選
大字唐詩合解
重訂詩學含英
中庸章句大全
庚午仲春開刊 大學章句
周易傳義大全
孟子集註大全
丁亥六月沿洞新刊 御定奎章全韻
書傳諺解
(吳文福氏所藏)

民 謠

指導教授：金 榮 敦

班 員：金 允 堅 (3年)

玄 丞 桓 (1年)

< 唱 者 >

이	경	일 (여, 84세)	현	남	여 (여, 78세)
변	여	옥 (여, 73세)	이	경	춘 (여, 73세)
송	금	석 (여, 70세)	현	유	생 (여, 65세)
조	일	승 (여, 57세)	조	을	선 (여, 56세)
이	선	옥 (여, 56세)	서	양	숙 (여, 48세)
현	순	자 (여, 40세)	강	찬	호 (남, 39세)
고	광	필 (남, 36세)	김	영	광 (남, 15세)
강	명	철 (남, 12세)	송	승	일 (남, 8세)

目	次
I. 타	령
II. 노	동 요
III. 동	요

調査地域이 5世紀間の 縣廳所在地였던 까닭에, 官妓들이 부르던 唱民謠가 전승되고 있음에 留意하여 唱民謠를 중심하되, 노동요와 동요도 두루 수집하였다.

민요의 대부분이 여성에 의해 전승되고 있었기 때문에, 調査期間이 마침 農繁期여서 수집활동에 다소 애로가 있었다. 唱者를 選定함에는 男女老少를 가리지 않았음을 원칙으로 했다.

성읍리가 민요가 풍부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읍리는 縣廳所在地였던 까닭에 창민요가 풍부할 뿐 제주도 민요의 전형인 노동요의 보존 구역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I. 타 령

i. 오돌또기

1-1 오돌또기 저기 춘향 월이월이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등기대당실 등기대당실
지어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갈꺼나 보다 말꺼나 보다
오르라 하니 말꺼나 보다

등기대당실 등기대당실
지어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현순자, 여, 40세〉

1-2 오돌또기 저기 춘향 월이월이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성산포일출 사봉낙조
제주시 항구엔 산포조어
제주시 삼천단 고수목마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제주시 서문동 굴림추색
제주시 용담은 용연야벌

濟州島部落誌(Ⅳ)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제주시 아흔아홉골 영구춘화
할로산 중허리엔 영실기암
할로산 상상봉 녹담만설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대정에는 산방굴사
서귀포 조중 정방폭포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조을선, 여, 56세〉

1-3 오돌뫼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한라산 상상봉에 구름이 뜬송만송
서귀포 해녀가 바다에 뜬송만송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이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성산포 일출봉엔 안개가 낀송만송
오조리 송어장에 송어가 뜬송만송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이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가면은 가고 말면은 말지
짚신을 신고서 어이나 시집을 가노나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이어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고광필, 남, 36세〉

2. 달거리

정월이라 십오일엔
창신 보선 뭇게 출런
즈손 뭇첸 분향을 드런
우리 님은 어디 간
분향잔을 못드리던고

이월이라 영등일엔
소상강에랑 깨그래기
가노라고 하직을 하고

삼월이라 삼진일엔
제비새는 오노라고
문안을 드런

사월이라 초파일엔
골목마다랑 남등 대등
우리 님은 어딜 가고
등불 귀경은 못하든고

오월이라 단오에는
우리 님은 어딜 가고
단오밥도 못 먹든고

유월이라 유두일에
우리 님은 어딜 가고

濟州島部落誌(Ⅳ)

유두 귀경을 문하든고

칠월이라 칠석이 된

우리 님은 어딜 가고

칠성 젼우성 문 보든고

팔월이라 추석에는

노푼 낭게 추천 걸엿

천리 만리 떠전마는

우리 님은 어딜 가고

추천 흥번 문하든고

구월이라 국화꽃은

꼭깃볼긋 나전마는

우리 님은 어딜 가고

국화 귀경을 문하든고

시월이라 단풍이 고완

담마다랑 볼긋볼긋

우리 님은 어딜 가고

단풍 귀경을 문하든고

동진 돌 동지에는

들건마드랑 꽃죽에

우리 님은 어딜 가고

꽃죽 귀경을 문하든고

설월이라 대보름은

뜨는 것은 연이로구나

우리 님은 어디나 가고

피울 연도 모르는고

〈현남여, 여, 78세〉

3. 관덕정앞

3-1 관덕정 문옆에 영리방 걸음을 걸어라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아기종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레 나간다
이화자 종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종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레 나간다

등장가세 등장가세 하느님께다
엘레화 등장을 잡시다
이화자 종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늙은 사름 죽지나 말고
젊은 사름도 엘레화 죽게를 마소서
이화자 종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변여옥, 여, 73세〉

3-2 지화자 종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종 흥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레 나간다
관덕정 문앞에 영리방 걸음을 걸어라
아기종 흥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레 나간다

돈하고 돈한전 산지야 작별하고
모진 것은 이리화 콩기화이로다
아기종 흥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레 나간다

산지포 바다엔 할로산 떴고
김녕포 바다엔 엘레화 조기선 떴구나
기화자 종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팔롱팔롱 서갑서맹기 곰태도 아니 뭉고
네가 시집을 가느냐
기화자 종을소 대명당 허리로구나
아기종 흥 아장거려서 신목사 후리레 나간다

〈현유생, 여, 65세〉

4. 연병가

연변에 약산이 등대로구나

濟州島部落誌(Ⅳ)

어허잉어야
너 부디 평안하여라
멩넌 양이양춘 가절이라도
또다시 상봉하련만

〈변여옥, 여, 73세〉

5. 계화타령

넬랑 죽건 서울 함경도
임익이나 되고
날랑 죽건 매화가
줄로 왕상 되노라
에따 요년 돈 받아라
계화는 산전에 돌고서
김계화 내 돈만 받아라
십리화방에 벌나무 툇툇
소소리 방풍에 땡그러지툇툇
엄동설한에 매화가
문풍지만 되노라
에따 요년 돈 받아라
정든 서방에 외적한 골목에
아리 단둘이 만나서
육센 서울에 바리발발 떠노라
에따 요년 무엇이더냐
백광목 구정뱅이에
생오줌만 쫄쫄 싸노라
넬랑 죽건 거기다 거기다 장독이나 되고
날랑 죽건 매화가 실광산 피는다
에따 요년 돈 받아라
계화는 산전에 돌고서
김계화 내 돈만 받아라

〈변여옥, 여, 73세〉

6. 사랑가

6-1 사랑 사랑 내 놀던 사랑
연지 복반에 복 빠진 사랑
에헤야 에이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 사랑아

사랑인지 복반인지
잠들기 전에는 정든 임 생각
에헤야 에이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 사랑아

간지 간지 벨 간지 속에
떼이고 보니 떼일 뿔자
에헤야 에이요로 설마
두리둥둥 내 사랑아

〈현순자, 여, 40세〉

6-2 사공동 내 스랑아
너를 타고서 꽃밭되 들어
물발마다나 상내가 난다
삼화둥둥 내 스랑아

청롱 홍롱 널어진 벼을
총각찬 바람에
낙서발만 텐다
삼화둥둥 내 스랑아

너는 누며 나는 누며
상산땅에다 조자롱이다
삼화둥둥 내 스랑아

서천 가마천은 연방 중에 놀고
정든 큰애기 품에서 논다

삼화동동 내 사랑아

〈변여옥, 여, 73세〉

7. 중타령

에응에야 에응에야

요리 조리 나 할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중놈의 굴갓에 수리 수천냥이 가 이야도

지야절로 내가 담당하리라

에응에야 에응에야

요리 저리 나 이야도

지야절로 심중만 탄다

중놈의 목탁에 수리 수천냥이 가 이야도

지야절로 내가 담당하리라

에응에야 에응에야

요리 조리 나 할야도

지야절로 내가 담당하리라

중놈의 보선에

양이 양닷돈이 가 이야도

지야절로 내가 담당하리라

에응에야 에응에야

요리 조리 나 할야도

지야절로 내가 담당하리라

8. 방화타령

흘러 호결에 방화로구나

옥황상제는 구름을 타고

태국 천주는 코끼리 타고

공주 맹주는 쌍교를 타고

서울 이몽룡은 탈 것이 엇어

남은 것이 성춘향이를 타네

에에야 흘러 호결에 방화로구나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녹수청산 흐르는 물에
배추 씻는 저 처녀야
속님 씻어 누구를 주려고
치마 속에 감기느냐
에에에행에야 흘러 호결에 방화로구나

〈현순자, 여, 40세〉

9. 아리시리딩딩

아리시리딩딩 시리시리딩딩
연병로 킬리리 송알송알
명서대처로 뱃놀이가자
달도 떴네 벨도나 떴네
하늘 속 구름 속에 벨도나 떴네
아리시리딩딩 시리시리딩딩
연병로 킬리리 송알송알
명서대처로 뱃놀이 가자
아가야 아가야 울지나 마라
백두산 중허리에 해 저물아 간다
에라 요것이 서름이로구나
에라 요것이 긴심이로구나

〈현순자, 여, 40세〉

10. 질거리

에헤헤에양 에헤노나니라
청사초롱에 불 밝혀 놓고
에헤요로 춘향방으로
에헤에야 밤소일 간다

가면 가고 말면 말지
에헤요로 집신 신고
에헤에야 시집을 가나
에헤에양 에헤노나니라

濟州島部落誌(Ⅳ)

돌아오는 반달치 돌이 좋으니
에헤에야 절 받아 놓고
에헤에야 에헤노나니라

만수무강 글자를 새겨
에헤에야 수명장수
에헤에야 끈이나 돌고
에헤에야 에헤노나니라

서울 가신 낭군님 옷
에헤요로 각시 하나씩
에헤야 채와나 보자
에헤에야 에헤노나니라

〈조울선, 여, 56세〉

11. 용천검

찾던 칼을 썩 빼고 보니
난되 없는 용천의 검이라
에야라 되야라되야 방화로다

너는 어떤 계집의 아이로
대장부 살간장을 다 녹여간다
에야라 되야라되야 방화로구나

술진 가마줄은 연방중에 놓고
정든 큰애기 내 콧에서 논다
에야라 되야라되야 방화로구나

너도 총각 나도야 처녀
휘양머리 마주 잡고
입 맞추는 총각
에야라 되야라되야

연반물 치마에 동자나 머리에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고개나 들어라 눈땀 썰 보자
에야라 디야라디야 방화로구나

노랑동머리 뒤범벅상투
언자나 커서도 내 낭군 되나
에야라 디야라디야 방화로구나

내 눈은 꿈막 네 눈은 슬픔
양눈치 속에서 벨 농간 뜬다
에야라 디야라디야 방화로구나

〈현남여, 여, 78세〉

II. 노동요

1. 밧돌·방아노래

1-1 이여 이여
놈의 첩광
소린 나도
이여 이여

가시오름
승시제와
튼은 독이
벧긴 개도
그시린 듯이
이여 이여

이여동하라
소낭겅 밧름은
살을 일 옷나
이여동하라

창당장칩의
드리젠 하난
고기옥 하고
돌음을 돈고
와들랑 혼다
이여동하라

〈조울선, 여, 56세〉

1-2 이연 이연
임아 임아
서울 삼경
반가와도
서울이사

이여동하라
정든 임아
가오라시민
상들러 준다
떨어라마는

濟州島部落誌(Ⅳ)

가난 을 줄
서울 가곤
반가와도
이연 이연

다습어멍
나 눈물로
아방 시민
어멍 시민
이연 이연
이여호난
이연 말은

몰라라 호다
오라나시민
상 들러 준다
이여동호라

개년이 풀년
옷 반반이여
신 반반 신나
옷 반반 입나
이여동호라
나 눈물난다
말아근 가라

〈조울선, 여, 56세〉

1-3 이여 이여
산에 올라
이름이 좋아
종의 몸에
내 이름은
이여 이여

이여동호라
옥을 캐니
선옥이라라
난 일이 설화
설움이라라
이여동호라

〈서양숙, 여, 48세〉

1-4 이여 이여
날랑 죽건
나 우의랑
비여 녹정
삼천 선비
이여 이여

이여동호라
닥뱃의 문영
즐기로 나건
대백지 짓영
글발로 놀라
이여동호라

이여 호난
이엿말랑
가다 말은
저 손이나

나 눈물 난다
말아근 가라
저 손이 바텐
엇이민 호다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이여 이여

이여동하라

〈현유생, 여, 65세〉

1-5 이연 이연

ㄱ랑좁쌀

늪의 어멍

이연 이연

가시오름에

세콜방에

이연 이연

이여 하민

이여동하라

늪엇이 먹엉

말엇이 산다

이여동하라

강당장침의

새글럼서라

이여동하라

나 눈물난다

〈이선옥, 여, 56세〉

1-6 이여 하난

서울 산전

그려 봐도

서문 밧기

세간 거념

어딜 곱넌

이여 이여

ㄱ래 꼴앙

옷 앞섭이

방에 징연

치매 앞도

이여 이여

나 눈물난다

가오라시민

상 들러 준다

ㄱ다시집의

가오던 손을

상 들렁 주리

이여동하라

역들어 부난

전주리난다

역들젠 하난

전주리난다

이여동하라

〈현유생, 여, 65세〉

1-7 이연 이연

산뎡 하나

붉은 양재

지미산에

산에 올라

이여동하라

못 산뎡 하나

지미나 보라

메움엿 빙름

옥을 캐들

濟州島部落誌(Ⅳ)

이름이 좋아
이연 이연

산옥이라냐
이여동하랴

다슴어멍
나 눈물나
우리 어멍
어느 바당
벼름 불 적
궁글리멍

개년이 꼴년
옷 반반이여
날 설아 올 적
메역국 먹엉
절 일 때마다
울어라 혼다

〈송금석, 여, 70세〉

2. 김 매는 노래

2-1 선낙각시

씨왓이엔
가튼밧디
회연번뜩
나의 눈에
임의 눈에

씨왓이 굿언
튼으레 가난
매마꽃ㄹ찌
나앉아시니
요만이 고을 적
얼마나 조리

〈현순자, 여, 40세〉

2-2 성주로다 성주로다

요집의 성조가 어디러냐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님의
다 늙은 손을 용고산이라
점쳤더니
밤은 드난 촌 이슬 맞고
낮은 드난 해 너미 발란
청장목이 꿩엿구나
황장목이 꿩엿구나
요재목을 내려 흥니
서른 세명 역군님이
강태공의 서목시 돌앙
대산의 올라 대목 베고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소산의 올라 소목 배영
온건 산천에 집을 거덩
으 재목에 궁을 지영
영고영천 흐르는 불
어디고 등당 띄와 보자
이물에랑 이사공아
고물에랑 고사공아
허리 때밋디 화장아야
물때 점점 늦어간다
손대바당의 배 띄와 놓고
함경도 원산 닷감개 소리
마산포 큰애기 고집만 세영
으 집 짓영 삼년만의
아들을 나난 효주 나고
딸은 나난 열네로다
췌는 나난 황췌나고
개는 나난 사능캐여

〈현유생, 여, 65세〉

2-3 (각 行이 끝날 때마다 ‘아아아양 에옹 에야’ 하는 후렴이 따른다)

앞명에야 들어나 오라
뒷명에야 넘어나 가라
오늘 흥를 여기서 놀면
내일은 어디를 가나
노세 놀아 젊어서 놀아
늙어 병들면 못노리다

시집살이 궂언디 조은디
우럭 닳은 씨할아바님에
얼레기 닳은 씨할머님에
살저 흥니 고생이 뤄고
죽젠 흥니 청춘이로다
장독 닳은 씨아바님에

濟州島部落誌(Ⅳ)

암전복 님은 씨어머님에
코생이 님은 씨누이에
물구럭 님은 서방님에
살져 흥난 고생이라라

씨할아바님은 나를 보민
어럭ㄴ찌 성긋흥고
씨할바님은 나를 보민
얼레기ㄴ찌 성씩흥고
씨어머님은 나를 보민
암전복ㄴ찌 오드득흥고
씨누이는 나를 보민
코생이ㄴ찌 조르륵흥고
서방님은 나를 보민
물구럭ㄴ찌 엉주아 안나
살져 흥니 고생이고
죽져 흥니 청춘이로다

〈현남여, 여, 78세〉

3. 마당질 노래

3-1 에야홍아 에기야홍아
하늘에는 베클을 걸고
구름을 잡아 잉에에 걸자
에야홍아 에기야홍아

높은 남괴 열매ㄴ찌
몬착몬착 따려보자
에야홍아 에기야홍아

넓게 넓게 따려보자
적갱이에 독새기 쿨은 거
떨어지영 깨지게 말앙
메여다치라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에야홍아 에기야홍아

〈현남여, 여, 78세〉

3-2 (A : 先唱, B : 後唱)

A : 에야도하야

B : 에기야홍아

A : 에기야홍아

B : 에야홍아

A : 요거여 저거여

B : 행고래여

A : 요동산을

B : 때려보자

A : 춤을춘다

B : 에야홍아

A : 에야홍아

B : 요거여 저거여

A : 요동산이

B : 에야하야

A : 줌을 잔다

B : 때리소서

A : 에기야홍아

B : 에야홍아

〈송금석, 여, 70세 · 조일승, 여, 57세〉

4. 불미노래 (대장간노래)

불어라 불어라

경상도 대불미

제장성 소불미

인천서 가시낭숫

불어라 불어라

후루룩 활딱

불어라 불어라

삼월이라 삼진일에

아바님 제손 돌아오고

멧솔도 엇고

제숙도 엇고

불미나 잘 불민

멧솔이여 제숙이여

통영칠반 안성유기

잘 출려 줌세

불어라 불어라

濟州島部落誌(Ⅳ)

후루룩 활짝
불어라 불어라

〈현남여, 여, 78세〉

5. 달구노래 (各 行이 끝날 때마다 '어허달구'라는 후렴이 따른다)

청천하늘엔 뱀이 총총
요내 가슴엔 준수심 하다
칠성ㄱ찌 벌어진 적군
달구를 지민 권주훈다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 동녘에 달 솟아온다
인생 일장춘몽인데
아니 노지 못하리라
우리 요렇게 살당
어찌 불쌍 죽어지민
고사리 일산 테역 두엇
어느 누구가 날 찾아 오리

〈강찬호, 남, 39세〉

Ⅲ. 동 요

1. 잠자리를 잡으며

1-1 물자리아 물자리아

앉이라 앉이라
안앉이면 불케와 불키여

〈송승일, 남, 8세〉

1-2 물자라 물자라

앉아난 방석에 앉이라
안앉이민 불케와 불키여

〈강명철, 남, 12세〉

2. 원님놀이하면서

2-1 인다리 전다리 개천개

자리 짐치 장도칼

짐택이 열석냥

숫이야 가마야 동맹

〈송승일, 남, 8세〉

2-2 혼다리 인다리

거침 대침

시나노자 범병개

어령타령 새끈

〈서양숙, 여, 48세〉

2-3 혼다리 인다리 거천개

시나노자 버문개

어어장장 군노끈

돌깁 새끈

〈조을선, 여, 56세〉

2-4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청산 맹진 도맹진

자리 짐치 장도칼

짐택이 열석냥

숫이야 방되야

가막아 까옥아 동맹

〈조을선, 여, 56세〉

3. 평노래

3-1 평평 장서방

어찌어찌 살암소

그럭저럭 살암소

똥을 먹고 살암소

濟州島部落誌(Ⅳ)

남신착에 콩 보까 먹고
룽앙테영 죽엇다

〈현순자, 여, 40세〉

3-2 평평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암소
삼년 묵은 초나미밧디
콩을 먹고 살암소

〈이경일, 여, 84세〉

4. 거미 노래

거미야 거미야 황거미야
느줄 나줄 받아 꿰라
아진개 조진개
동동개 도국장
충청도 대별상
영광 범생이
어디든 구심으로 들어가자

〈현남여, 여, 78세〉

信 仰

指導教授：玄 容 駿

班 員：申 德 一 (3年)

愼 幸 順 (1年)

目	次
I. 概 觀	3) 家庭信仰
II. 部落信仰	(1) 조왕제
1) 儒式部落祭	(2) 土神祭
(1) 醕祭	(3) 을레쿠시
(2) 백중굿	4) 公認宗教
2) 巫式部落祭	(1) 基督教
(1) 안할망당	(2) 國際道德協會
(2) 산신당	(3) 佛教
(3) 상궁알당	

I. 概 觀

城邑里는 過去 旌義縣의 縣廳 所在地였다. 現在 1년 호당 수입이 150만 원에 육박하며 TV가 80여 대나 있는 富農村이고, 指定 民俗村이다.

이러한 歷史的·現時代的 條件은 住民들의 意識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信仰 面에서 이런 點은 두드러진데, 外來宗教의 포교 과정과 在來 宗教에의 固着性 등은 여러 가지 點을 示唆해 준다. 城邑里는 現在까지 部落祭인 醕祭가 行해지고 있으며 住民 거의가 <안할망당>에 다니고 있다. 家庭信仰도 縣廳 所在地인 當時는 特異性을 보였던 것으로 추측되나, 現在는 <을레쿠시>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 他部落에 비해 特異한 點이라 하겠다.

Ⅱ. 部落信仰

1) 儒式部落祭

儒式部落祭로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은 酺祭뿐이다. 帝釋祭는 약 50년 전에 없어져서 지금은 '제석동산'이란 地名만 남아 있고, 백종도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1) 酺 祭

㉠ 祭名 : 酺祭라 한다.

㉡ 由來 : 城邑里 酺祭만이 갖는 특별한 유래는 전해지지 않는다.

㉢ 祭神 : 上壇의 神은 酺祭之位요, 下壇의 神은 諸首任神之位, 染疾神之位 牧童神之位 等 三神位이다.

㉣ 祝文 : 上壇의 祝文과 下壇의 祝文으로 나뉘는데 祝文은 다음과 같다

<上壇祝>

酺神之靈 伏以 赫赫明神 降我一域 彌災致祥 莫非其極 茲值新正 齋明盛服 吉日良辰 敢奠菲薄 昭昭在上 洋洋歆格 神唯降鑑 特垂陰監 實賴神休 凶反爲吉 煽動和氣 在日僑胞 體力康寧 營業如意 所願成就 屏彼奸賊 掃除螟蠹 驅逐癘疫 滋滋百畜 穰穰百穀 俾我一域 永歲康樂 謹以 牲幣醴齊粢粢 庶品式陳 明薦 神其佑之 尙鑒<城邑里酺祭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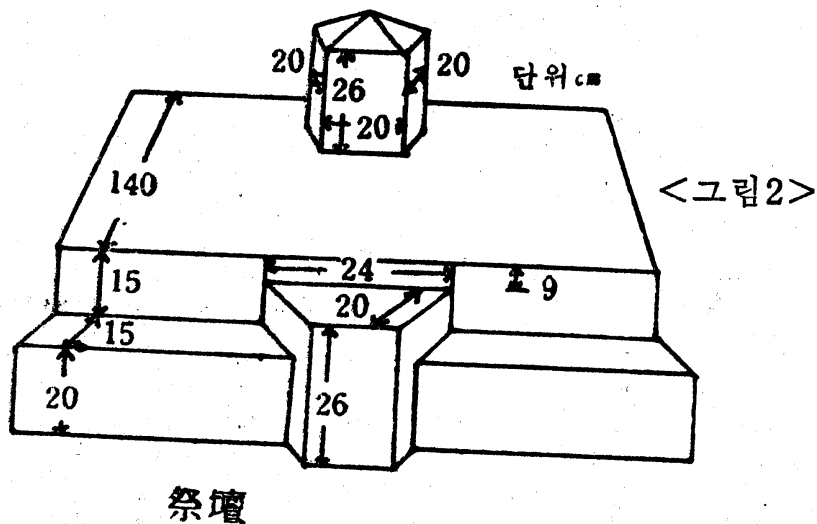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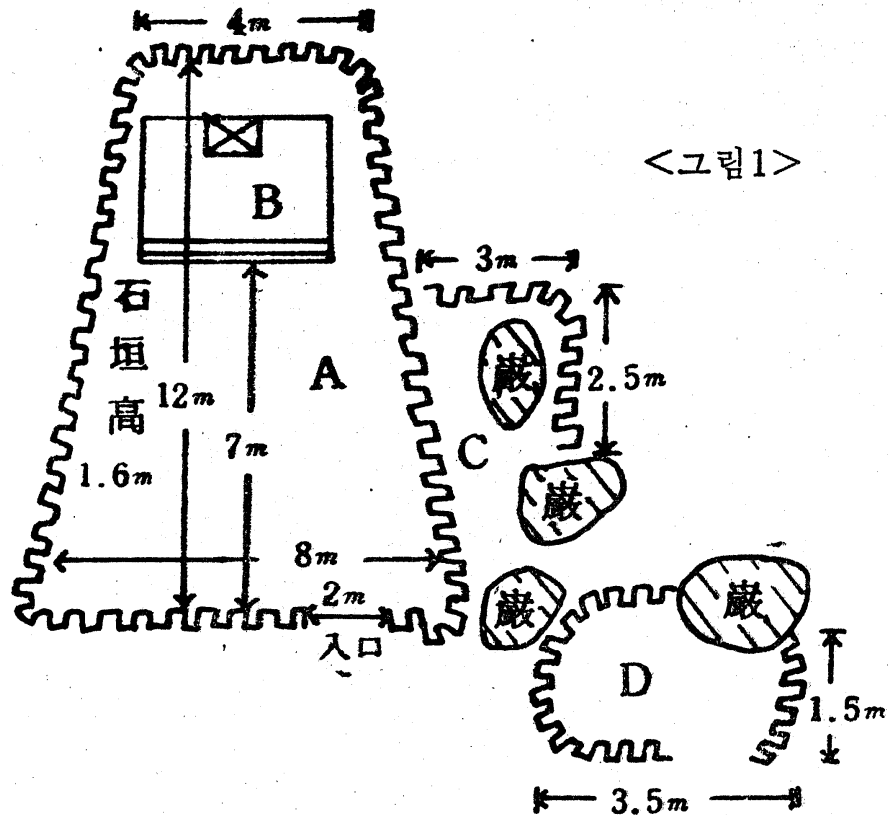
<下壇祝>

① 諸首任神之位 當日特受 酺神主嚴命處分內 今因萬民之明祭 牛馬無癖事 特受大赦 德如青天 恩如日月 奉祭之日本日故 諸首任諸位 掌率諸色 必也來會 生主里事 死何閑焉 願飲酒饌 一境之內 染疾客神 邪神 馬牛癖鬼 眼同逐隨 千里放送之後 可使行祭 城邑一村 馬牛無癖 永世太平 謹告<城邑里酺祭記에서>

② 染疾神之位 染疾致死神 飢死神 非命致死神 一境之內 若此之神 不如其幾 孤魂無託 祭祀不及 陰魂未散 結以爲妖 於唯衆神 來享飲食 一境之內 馬牛癖鬼 卽日迅掃 千里放送之後 使此城邑一域 永爲太平事 謹告<城邑里酺祭記에서>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③ 牧童神之位 牧童死神 屠牛馬死神 爲賊死神 一境之內 若此之神 不知其幾 孤魂無託 祭祀不及 陰魂未散 結以爲妖 生災彌災 是神所主 馬牛癖癘 是神所主 城邑一村 農牛騎馬 畜屯之家 屯牛屯馬 永無蹇癖 晝夜看牧 永使肥澤 逐首自產 歲加蕃殖 小無小損 永世太平事 謹告 <城邑里醮祭記에서>



濟州島部落誌(Ⅳ)

㊤ 祭場：마을 서북쪽 약 1km 지점, 속칭 ‘까마귀 동산’에 祭壇이 마련 되어 있는데, 그 形態는 <그림 1>과 같다.

A는 上壇祭를 지내는 곳이다.

B는 그 祭壇으로 시멘트로 되어 있으며 <그림 2>와 같다.

C는 下壇祭를 지내는 곳이다.

D는 典祠廳의 구실을 하여 옷을 갈아 입는 등, 준비를 하는 곳이다.

㊦ 祭日：正月 或正 或亥 子時

㊧ 運營：동짓달 25일에 里長이 鄉會를 열어 祭官 選出, 祭物 準備, 祭廳 決定 등 祭儀 準備를 한다.

㊨ 祭官：18祭官을 원칙으로 하나 보통 7~8명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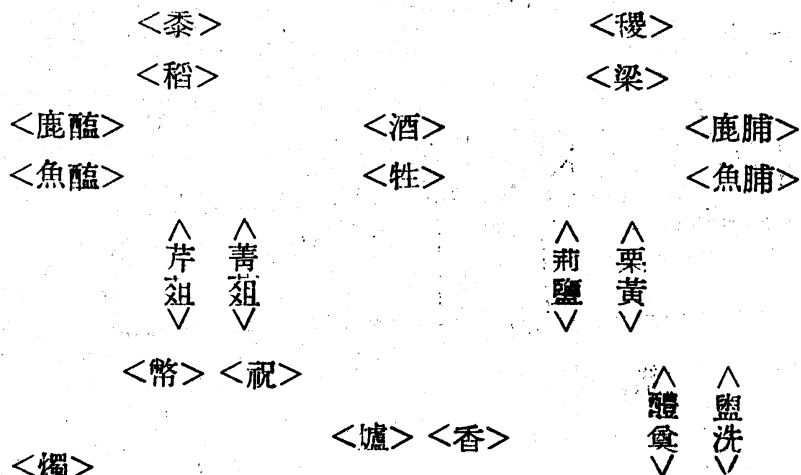
18祭官은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典司官, 執禮, 大祝, (東·西) 贊者, 謁者, 贊引, 奉香, 奉爐, 奉爵, 奠酌, 司樽, 酒監, 飯監 (掌牲令, 炊飯) 이다. 이 중 三獻官은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 祭物 및 陳設：祭物은 里長宅에서 準備하여 典司官에게 넘기는데 마을 사람들이 성의껏 내놓은 金品으로 準備하며 재일 교포가 해마다, 비용을 조금씩 보내고 있다.

祭物은 稻·梁·黍·粳 各 三升, 鹿脯 五脰, 鹿醢 五脰, 魚脯 五尾, 魚醢 五尾, 犧牲 一頭, 菁·芹俎 各各 若干, 荊鹽 若干, 栗黃 五点, 甘酒 二瓶, 香 一封, 燭 一封, 幣帛紙 三張, 祝文紙 三張 등이다. 鹿脯 鹿醢는 노루고기가 없으면 쇠고기로 대신할 수 있고, 犧牲은 검은 숫돼지 1마리로 한다.

이상 祭物이 準備되면 다음과 같이 陳設한다.

<醕神之位陳設圖>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 祭服 및 祭器 : 1932年 壬子 正月 十三日 現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靑矜 三着, 儒巾 10個, 사발 4個, 흰 접시 8個, 파란 접시 3個, 종지 6個 흰 보시기(보시) 2個, 정반 4個, 관세대접, 목정반, 축판, 모새접시, 各 1個, 笏 3個 등이 있다.

㊥ 行祭 : 執禮가唱하는 笏記에 따라 먼저 上壇祭를 지낸 후 下壇祭를 지내는데, 下壇祭는 祝만 告한다. 下壇祝은 세상의 모든 귀신을 위한 것이므로 처음에는 21번 告했으나 차차 줄어 들어 7번을 告해 오다가 지금은 3번만 告한다.

<笏記>

謁者引獻官以下 俱就門外位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壇南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詣盥洗位 北向立 盥洗 各就位 謁者引獻官 入就位 謁者進獻官之左 白有事 謹俱請行事 四拜 獻官以皆四拜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洗 執笏 引詣神位前 北向跪 搯笏 三上香 獻幣 執笏 俯復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以皆四拜 行初獻禮 謁者引初獻官 詣樽所 西向立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搯笏 獻酌 執笏 俯復興 小退跪 祝以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 俯復興 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洗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搯笏 獻酌 執笏 俯復興 平身 引降復位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搯笏 盥洗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搯笏 獻酌 執笏 俯復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以皆四拜 徹籩豆 祝以進徹籩豆 四拜 獻官以皆四拜 望燎位 謁者引初獻官 詣望燎位 祝以進取祝板及幣 西階詣盥洗 謁者進獻官之左 白禮畢 遂引獻官出 謁者引祝及諸執事 俱伏壇南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禮畢出 (城邑里補祭記에서)

(2) 백종굿

畜産하는 사람들이 백종날(陰 7月 보름) 畜産이 잘 되게 하여 주십사고 지내는 祭이다.

메 1器 · 술 · 떡 · 바다 고기 등을 마련하여 백종날 子正에 瀛洲山에 가서 지낸다.

과거에는 동네 별로 크게 지냈으나, 지금은 거의 지내지 않고 동네마다 두서너 家口에서 行하고 있을 뿐이다.

2) 巫式部落祭

旌義縣 縣廳 所在地였을 때는 縣廳建物과 附屬建物마다에 堂이 하나씩

있었고 덧붙여서 마을 외곽에도 堂들이 있어서 現在 이름이 남아 있는 것만도 안할망당·산신당·서낭당·여드렛당·각시당·개하르방 개할망·산짓당·요왕당·서화릿당·상궁알당·일렛당·쇠당·창방할망당·광주부인당·높은당·낮은당·문유당 등 18개에 이른다. 그러나 現在 남아 있는 것으로는 本郷堂인 안할망당과 산신당·상궁알당 정도이며, 그 외는 神木이나 돌무더기로 흔적이 남아 있거나 흔적마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1) 안할망당

㉠ 名稱：〈안할망당〉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락민은 ‘堂’이라 부르지 않고 ‘안할망’·‘안할마님’·‘관청할마님’ 등 친근감 있게 부르고 있다.

㉡ 位置：마을의 중심부 縣廳 옆에 있다.

㉢ 構造：과거에는 늙은 팽나무 神木 앞에 돌을 모아 祭壇을 꾸미었고, 주위는 돌로 울타리를 둘렀으나, 1971년 里事務所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 그 敷地에 接하게 되어 팽나무 밑동에 있었던 堂을 그 바로 서쪽 들담 너머에 2평 가량의 슬레이트 집을 짓고 移設하였다.

出入口門을 열면 시멘트壇 위에 木造神壇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縣海守護神之位〉라 쓰인 位牌가 서 있으며 位牌 왼쪽에는 구슬 목걸이가 걸려 있고, 位牌 밑에는 붉은 방석 위에 비녀가 한 개 놓여 있다. 木造神壇 위에는 ‘李朝 世宗五年 本 晉舍村에 旌義邑地로 設定하니 初代 縣監이 縣守護神으로 仰尊 官民一致 奉安하다. 辛亥年 三月 日 移設’이라 쓰인 팻말이 놓여 있다.

㉣ 由來：本郷堂이지만 본풀이를 해낼 수 있는 심방은 없다. 그러나 村老에 의해 몇 가지 유형으로 그 由來를 알아 볼 수 있다.

i) 제주시 칠성골에 딸 일곱을 가진 집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칠성골로, 둘째 딸은 정의현 판리의 부인으로, 세째 딸은 대정현으로, 네째·다섯째 딸은 안고팡지기의 아내로, 여섯·일곱째 딸은 용수당과 창방지기의 아내로 각각 시집을 갔다. 정의현에 시집 온 딸은 인물이 뛰어나 비범하고 영리하니 관청에 드나들게 되었고 관청에 다니는 사람이 모두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는 만리를 보는 능력을 지녔다. 그 후 그녀가 죽자 관청에 다니는 사람들이 극진히 모신 것이 現在 안할마님이 되었다.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ii) 육지에서 상자가 떠내려 왔는데 그 속에는 일곱 사람이 있었다. 일곱 사람은 정의현에 정착하여 큰 딸은 안할망이 되고, 둘째 딸은 창방할망이 되고, 세째 딸은 개당할망이 되고, 네째는 형방할망이 되고, 다섯째는 쇠당할망이 되고, 여섯째는 관전발, 막내 딸은 문유당이 되었다. 큰 딸인 안할망에게는 토지지관, 국방하인, 삼만관숙의 세 하인이 있어서 지글도 양푼에 수저를 세 개 꽂아 메를 올린다.

iii) 채공수란 군수가 육지에서 도입차 내려올 때, 바다에 둥둥 떠다니던 켜 짝을 보고, 이내 물으로 끌어 올려 열어 보니 7개의 만좌미(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사람의 혼령이라 믿고서 제사 지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iv) 일은 잘되게 해도 죄를 안주는 할망이 있었는데, 목사가 사냥갔다가 꿩을 잡아다 주니 꿈에 나타났다. 그 때부터 목사는 할망을 안에 모시기 시작하니 안할망이 되고, 목사를 따라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들이 점차로 안할망을 모시게 되자 관창할망이라고도 불리게 됐다. 그러다가 이조시대가 지나면서 약 100년 전부터는 평민들도 안할망에게 다니게 되었으니 일은 잘되게 해도 죄는 안 주는 할망이다.

이상 現在 傳해지는 由來와 祭를 지내는 形態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보면 <안할망>이란 원래 <안칠성>이라 하는 神임을 알 수 있다. <안칠성>이란 집안의 庫房에 모시면 富를 갖다주는 蛇神으로 일반적으로는 家內神으로 모셔지고 있는데, 이 마을에선 마을의 富를 갖다 주는 堂神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㊸ 메인 심방; 원래 성읍리는 메인 심방이 없다. 60여 년 전에 旌義地方에서 가장 큰 심방이던 「고평이」가 살았을 때 이 당을 맡고 있었으나 後孫이 없어 계승을 못하고, 그 후 이 사람 저 사람이 안할망을 모셔 1~2년 살면 전부 나가 버리다가, 20여 년 전에는 「韓元平」氏가 큰심방으로 당을 맡고 있었으나 역시 後孫이 없어서 韓氏가 죽자 본풀이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졌으며 큰 굿도 안하게 됐다. 現在는 1年 전에 김녕에서 移住해 온 신지(女, 62歲)氏가 이 마을의 유일한 심방이며 안할망을 모시고 있다.

㊹ 効驗; 부락 공동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집안의 소망, 자식의 입학, 취직, 승급 시험을 볼 때, 병에 걸릴 때, 축구시합 등의 경기 때, 심지어는

濟州島部落誌(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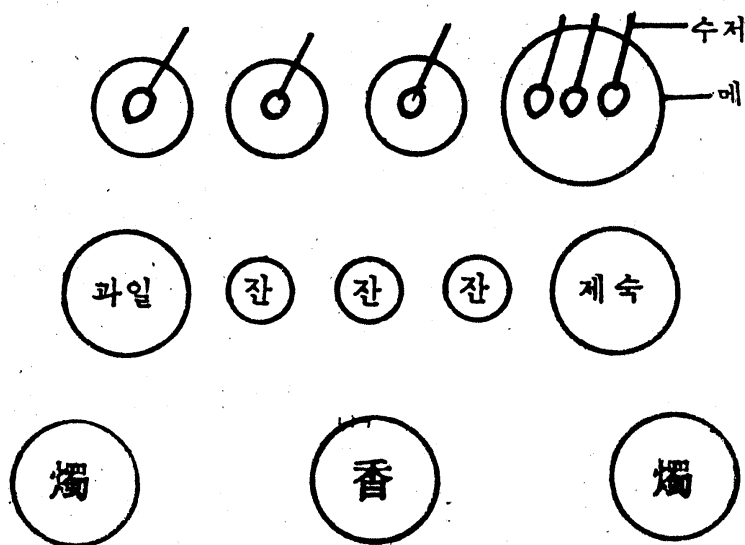
투전판에 갈 때에도 안할망에게 들러 빌고 가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한때는 난산리에서 안할망을 흠쳐 가버리자, 학교에 불이 나고 어느 청년이 急死하고 농사가 안되는 등 凶事가 겹쳐 일어나므로 심방들이 싸우면서 찾아 온 일도 있다.

㉔ 祭日; 개인별로 生氣를 봐서 時間까지 맞추어 擇日하여 致祭하러 간다. 과거에는 안할망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큰 굿도 했었다.

㉕ 祭物 및 陳設; 메 4器(小3, 大1)·수저 6·잔 3·과일·제숙(생선 또는 쇠고기. 제숙 대신 삶은 계란을 3개 올릴 수도 있다.)을 준비하여 다음과 같이 陳設한다.

<縣海守護之神之位>



큰 그릇의 메는 안할망의 종(奴婢)인 토지지관, 국방하인 삼만관숙에게 드리는 것이므로 수저가 3개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쌀 1보시기를 가져가 쌀점(以米施占)을 하고 均一하게 現金 500원을 올린다.

㉖ 行祭; 陳設이 끝나면 심방이 세번 절을 하고 다음과 같이 치성 드리는 말을 한다.

달을 갈라 어느 달 올금년 해로 갈라 정사년을습니다. 달은 갈라 무르더운 오뉴월 열허고 이틀이웁니다. 국은 갈라 강남은 드난 천제

국 일본은 드난 주년국 우리나라 드난 해동국 조선 전라남도 되옵니
다. 이 산 앞과 저 산 앞을 들망날망 보난 이 산 뒤는 절 오백 저 산
앞은 당 오백 오백 장군 오백서낭 아흔 아홉 골 단골머리 한 골 부족
허난 범도 왕도 못 읍니다. 국은 갈라 갑니다. 면은 갈라 포선면 높
이 올라 성읍리 각종 성친들이 사는 마을을읍니다. 오늘 아침에 할마
님께 드린 자손 천하산에 명을 빌제 하염수다. 기아산에 명과 복을
빌제 하염수다. 만스 스망 일제 하여 줍서. 다 시켜줍서. 나이 스무
설 올금년 대학 학교 입학허제 하염수다. 시험에 떨어질 일 막아줍서.
할머님전 앓아 천리, 사 천리 베레는 할머님 아님네까? 옥대부인 제
대부인 안할마님전 삼만관속을읍니다. 관청가에 관청할마님, 광주부
인 되읍니다. 거듭 또 올립니다. 육방하인 되읍니다. 모여들영 다 읍
서. 계란 안주 일보 혼잔 즈손덜이 드린 잔이읍니다. 받아삼서. 말씀
전 올립니다. 오늘은 생기 복덕 맞은 날에 할마님에 이 축원을 올리
면 다행스런 일입니다. 관승에 걸릴 일 막아줍서 싸움혈 일 막아줍
서. 이 마을도 각종 성친덜이 사는 마을에 무사 싸움고 세들어 오랑
싸울 일 다 젊은 청춘덜 다 관승에 맞았건, 영혈 일도 막아줍생 허
연 할마님전 축원을 올립니다. 각서오분양 한짓님입니다. 산짓당, 요
왕당 한짓님도 읍서. 산신대왕도 읍서. 개할으방 개할망도 읍서. 문
유당 한짓님도 어서 읍셴 하십니다. 한서화리 천주백죽님도 오랑 계
란 안주 일보 혼잔 읍서. 다 가지 갈라 오시던 웃토산 한짓님입니다.
상궁알당 한짓님 방울방울 마쳐오던 마흔여덟 상마을 서른 여덟 중마
을 스물여덟 하 마을로 다 마쳐오던 한짓님덜 아님네까? 다 오랑그
네 이 아기덜 줍셴 하연, 고운 공덕 줍셴 하연 이 축원을 올려 드립
니다. 거듭거듭 말씀전입니다. 이 마을에 옛날옛날 당서로 위해 오던
당 수호 선생님덜을읍니다. 광곽선생 · 주악선생 · 고씨 선생님네 · 이
씨 선생님 · 강씨 선생님 · 신씨 선생님네 다 오랑 일보 혼잔 하렴협서.
한량 선생일랑 저 올네 시군문으로 읍셴 하십니다. 말재랑 마냥마냥
드리くだ. 술도 드리곡 하영하영 드립니다. 올금년 동으로 오는 액년
을랑 남으로 북으로 막아주곡, 남으로 오는 액년이랑 동으로 서으로
동서로 막아쥔 이 애기덜 맹기는 질 행복허게 하여줍서. 앓아 천리
봄서. 사 천리 봄서. 할마님의 저 소서명전 내립서. 인간 백성이 어
찌 알 수 있읍네까? 된다 하건 된다 하곡, 아니된다 하건 아니되는

濟州島部落誌(Ⅳ)

겉로 확답, 소지명전을 내려줍서. 다 소지명전 올립네다. 복소지 올립니다. 명소지 올립네다. 복 없는 자는 복을 주꼭 명 없는 자는 명을 줍센 흥연 올려 드립네다. (口述者: 신지 女巫 62세)

치성이 끝나면 쌀점을 쳐吉凶을 알아본다.

(2) 산신당

산에 잘 다니는 사람들이 山神을 위하여 祭를 지내는 것으로 特定한 장소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장소에서 行한다. 7일 정성을 드린 다음 生氣에 맞는 일정한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간다. 보통 1년에 두 번 行 하나 사냥하는 집은 3년에 한 번 꼴로 사냥놀이를 하면서 크게 한다.

祭物은 메 3器·쇠고기·곶감·대추·밤·배나 유자 등 각종 과일·乾魚(명태)·술·감주 등이다.

(3) 상궁알당

㉠ 名稱: <상궁알당> 또는 <토산할망당>·<일렛당>이라고도 한다.

㉡ 位置 및 構造: 마을 서쪽 끝에서 약 300m 거리에 있다. 백지와 광목 등 물색(色布)이 걸린 늙은 팽나무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길게 自然石 祭壇이 마련되어 있다. 祭壇의 높이는 약 30cm이고 오른쪽으로 구멍이 두 개 있다. 주위는 울타리가 둘러졌으며 평지보다 조금 높은 구릉에 위치하여 있다.

㉢ 祭日: 유월 초이레·초여드레 및 동짓달 초이레·초여드레·열이레·열여드레이며 원래 심방들 자신을 위한 堂이어서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다.

3) 家庭信仰

(1) 조왕제(竈王祭)

㉠ 祭日: 擇日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날을 보지 않고 할 수도 있다. 行祭 時間이 정해져 있지도 않다.

㉡ 祭物: 메는 솥에 있는 그대로 올리고(보시기에 찌서 올리는 수도 있다) 과일과 미나리·콩나물·고사리·무우채 등 채소 및 술과 幣帛을 솥덕 위에 陳設한다.

㉢ 祭物: 특정된 순서는 없고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行하나 일반적으로 陳設을 마친 다음 스님의 경우는 經을 읽고 심방인 경우는 소원풀이

를 하여 쌀집을 치는 것으로 그친다.

㉔ 禁忌: 3日 정성을 드리고 금줄을 매는데 祭를 지내기 전에 매는 경우와 지낸 후에 매는 경우가 있다.

(2) 土神祭

㉕ 名稱: <土神祭> 또는 <開土祭>라 한다.

㉖ 祭神: 土地之神之位.

㉗ 祝文: 집안에서 지낼 때와 들판에서 지낼 때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前者는 新年에 安宅을 비는 경우이고, 後者는 葬禮 때 埋葬前에 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祭名도 다르니, 前者 곧 安宅의 祭는 <土神祭>라 하고, 後者인 葬禮時의 祭는 <土神祭>라 하기도 하고 <開土祭>라 하기도 한다.

<安宅을 위한 土神祭 祝文>

i) 土地之神 伏以 於赫明靈 保我家宅 爰居爰處 未賴無極 有禱必應 有誠必格 茲值新正 略薦菲薄 感我徵忱 特垂陰薦 弭災致祥 轉禍爲福 屏彼賊盜 驅彼癘疫 五穀豐登 六畜繁息 俾我家眷 共濟壽福 謹以酒果脯醢 祗薦于神 神其祐祗 尙饗

<葬禮時의 土神祭 祝文>

ii) 維歲次某年某月某日干支某官某 敢昭告于土地之神位 爲某官姓名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脯醢 祗薦于神 尙饗

㉘ 祭官: 마을의 유력한 분 1인에게 獻官을 부탁하여 한다. 7일 정성이 원칙이나 지금은 3일 정성을 한다. 祭를 지낼 때 獻官은 鄉校의 釋奠 때와 같이 儒巾을 쓰고 靑矜를 입는다.

㉙ 祭日: 집안에서 지내는 경우 正月에 擇日하여 한다.

㉚ 祭物: 稻梁黍稷으로 전 메, 犧牲(수탉 큰 것), 쇠고기, 명태, 五果(밤·대추·비자·유자·배), 미나리, 늬텅이(배추 덩굴), 청주, 소주, 감주, 幣帛紙, 祝文紙, 香, 燭, 鹽 등을 마련하는데 보통 獻官에게 일임해 버린다.

㉛ 行祭: 陳設(반드시 獻官이 한다)→焚香→四拜→아랫잔(감주)을 드림→四拜→윗잔(소주, 감주, 청주)을 드림→讀祝(3번 반복)→四拜→새를 쫓음(稻梁黍稷 中 모두에 서너 개씩)→侑食→雜食→四拜의 順으로 行하는데 雜食한 것은 땅에 묻고 그 위에서 祝文紙 幣帛紙 등을 태운다.

(3) 올레쿠시

집안을 위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殺氣를 除去하는 것인데 現在는 거의 行해지지 않는다.

㉠ 祭日: 正月과 三月 사이에 15세 이상인 家族과 남편·부인의 生氣에 맞게 擇日하여 한다.

㉡ 祭物: 稻梁黍稷의 돌레떡, 메 7器, 五果(대추·곶감·비자·밤·유자), 명태, 미나리, 술, 감주, 白紙, 犧牲(살아 있는 수탉) 등의 祭物을 마련하여 마루 위에 陳設하는데 메 7器는 조왕·쇠막귀신·마뒤·문전·터신·칠성·칫간神(廁神)들에게 올리는 것이다.

㉢ 行祭: 심방이나 스님을 빌어서 하는데, 잔을 올리고 祝願을 드린 다음, 雜食을 하고 이어서 犧牲인 수탉을 올레(進入路)로 던져 吉凶을 알아 본 뒤 죽인다.

㉣ 豫兆: 犧牲인 수탉의 머리를 탁 때려 ‘올레’로 던졌을 때 머리가 집 바깥쪽으로 향하면 吉하고, 집안으로 향하면 凶하다고 한다. 만일 닭이 집안으로 향했을 때는 사람이 가서 바깥쪽으로 고개를 향하게 돌려 놓는다. 그리고 ‘올레’로 내던진 닭은 떨어진 자리에서 한 발자국 나아간 자리에 묻어 버린다. 머리만 잘라놓는 경우도 있다.

4) 公認宗教

마을의 歷史와 함께 寺院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李朝 中期까지는 마을 외곽에 절이 무척 많았다고 하나 李衡祥 牧使가 소위 「절 五百 당 五百」을 파괴할 당시 전부 없어졌다. 지금도 영주산 동쪽과 서쪽에 절터의 흔적이 있으며 그 중 「정수암」은 특히 유명했다 한다.

現在 部落祭와 堂儀禮를 제외한 公認宗教로는 基督教·佛敎·國際道德協會가 있다.

1900年代에 천주교·기독교 등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자 住民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듯하여 새 宗教가 들어올 때마다 처음에는 융성하였으나 점차 쇠퇴하는 길을 걸어왔다. 즉 마을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現在까지 내려오는 宗教를 연대순으로 보면 ‘기독교-국제도덕협회-불교’의 順이 되는데 信徒數의 이동도 위와 같은 경도를 밟아 기독교가 제일 적고, 불교가 제일 많다.

(1) 基督教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① 名稱：대한 예수교 장로회 성읍 교회

② 沿革：제주시 서부교회의 창설과 같은 해인 1907년 천주교 터의 자리를 인수하여 現 位置에 교회가 세워졌다. 처음 3년 동안은 부산 영주교회 원로목사인 임정찬 목사가 있어 매우 왕성한 布教 活動을 벌여 敎人들을 50명 정도 확보했었으나 교인들이 他部落으로 移住해가는 등 점차 쇠퇴해져서, 現在는 젊은 학생들에 의해 겨우 명맥만 이어지고 있다.

③ 敎會施設：1970년 5월 슬레이트로 지붕을 개축한 現在의 교회는 대지 450평, 건물 29평, 사택 10평에, 종각·창고·변소 등 부속 건물이 있으며 전기 시설이 되어 있고 풍금이 있다.

④ 敎職者：現在 牧師가 常住하지는 않고, 表善敎會에서 일요일과 목요일 예배 때에만 임명환 목사가 온다. 그외 교회의 관리는 40代 이상의 유일한 신자이며 執事인 宋勝彦(男, 41세)씨가 도맡아 한다.

⑤ 信徒：성읍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중 약 20명, 국민학교 학생 약 50명 정도이며 일반 신도는 거의 없다.

(2) 國際道德協會

① 名稱：國際道德協會이나 마을에서는 <一貫道>라 부른다.

② 沿革：15年 전에 성읍리에 들어왔으며 초기에는 80호 이상의 信徒를 가지고 있었다.

③ 敎職者：2年 前부터 <선생>인 현영자(女, 35세)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④ 信徒：現在 7가구의 신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무관심하며 初八日·七夕·正月 등의 큰 불공 때는 40~50代의 부녀자들이 더러 온다.

(3) 佛 敎

① 名稱：大韓 佛敎 法華宗 靈佛寺

② 沿革：1960년에 現 住持인 崔德洪 스님에 의해 절이 세워지고, 1965년 9月 13日 法華宗에 등록되자,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 現在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다.

③ 寺刹施設：在日同胞의 후원과 釜山에 거주하는 한 女子菩薩 施主로 現在 垜地 150평에 法堂 12평, 요사채 12평이 있고 1976년에 在日 同胞가 喜捨한 鐘이 하나 있다.